VI

마을의 옛 추억과 미래에의 기대

1. 마을의 사건들

류 현 희(의왕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사건(事件)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이나, 어떤 실험이나 시행(試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 때문에 사건은 특정 사회적 조건이나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과로서, 계기성이나 연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잠재되어 있던 인간심리와 기본 인식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된 인물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나 설명방식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마을' 이라고 하는 지역공동체에서는 사건에 대한 개개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마을은 인간의 삶의 현장이고 사건을 경험하는 직접적인 공간이므로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가 상반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마을' 의 삶은 시간을 축으로 하는 역사적 흐름과 인간이 거주하는 또는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그물망을 교차시키면서 생성된다. 때문에 '마을' 이라는 공간은 한국사라는 큰 흐름과 더불어 지역적 질서와 방식이 이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인간들에게 의미를 부여한다.

화산동에서도 거주하는 인간의 생활모습이 '하나의 사건'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는 곳이다. 사건을 통해서 한 마을을 들여다 볼 때는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화산동 마을 사건의 실마리는 지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오랫동안 지명이나 설화에 관여하는 명칭들은 마을의 역사나 변화를 주도하는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화산동이나 안녕리 · 송산리 · 황계리라는 지명보다는 화산, 융 · 건릉, 용주사가 더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물론 화산동 지명은 2006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획득된 것이므로 연원을 따지자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화산이 융 · 건릉을 품은 산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화산동이라는 지명도 역사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명한 사건이나 저명한 인물이나 유서 깊은 유적이 지명으로 획득되는 과정은 유명세를 통한 명칭점유나 대표성 선점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의 주요 사건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암시한다. 화산동 관련해 익숙한 지명을 통해서 마을의 사건이나 변화과정도 유추할 수 있다.

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화산동의 변화는 조선후기 정조가 아버지 사도사제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이곳으로 이장하면서 본격화 된다. 현륭원의 이전으로 화산, 융 · 건릉, 용주사라는 지명이 등장했고, 일제시기에 들어서면서 병점 비행장, 5 · 16군사쿠데타 이후에 개척농장이 지역에서 의미있는 지명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지명의 출현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화산동' 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적 연결고리들을 가진다.

이러한 지명들과 관련해서 화산동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추적해 볼 수 있다. 대표 지명과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통해서 주요한 사건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화산동 일대의 최대 사건은 현륭원(顯隆園)의 이전과 수원부 구읍치의 이전, 그리고 이에 따른 능 주변의 사방 10리 국유지 설치로 인한 이곳 주민의 삶의 방식 변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제시기 일제의 능 주변의 국유지에 대한 토지침탈과 비행장 건설 등 수탈의 시기를 겪었고, 해방 이후에 좌우익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 대립과정, 다음은 1960년대 5 · 16군사쿠데타 이후에 이곳 융건릉 주변의 국유지에 개척농장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도시화 바람까지 현저하게 달라지는 화산동의 변화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들은 개별적 ·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조의 현륭원 이전이라는 조선후기 일대 사건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이 가지는 계기성과 격랑을 헤치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입장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과 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지고, 땅을 일구고 마을을 지키며 우직하게 살아가고 있다.

화산동에 관한 조사는 2006년 8월~2007년 1월까지 현장답사와 인터뷰,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은 일제시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근대화과정까지 한국현대사의 중요한 변화 시기를 경험한 분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마을의 주요사건을 처리하거나 경험할 수 있었던 이장 · 통장 · 노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2] 그러나 이미 70을 넘긴 분들도 해방 전후와 한국전쟁 등의 시기에는 열 살이 갓 넘었거나 중학생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1) 현륭원(顯隆園) 천봉과 수원부읍치 이전

화산동으로 현륭원(顯隆園; 융릉. 이하 능으로 약칭)이 이전되면서 조선후기 평범한 도호부민의 일상은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능원이 설치되면서 능 주변 민가들의 이주로 전래의 동족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이 지역에 새로

2) 2006년 8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2006년 8월 15일 화산초등학교 60주년 기념행사, 10월 21(혹은 28일), 11월 5일, 11월 8일, 11월 11일, 11월 18일, 2007년 1월 6일, 1월 10일, 1월 13일 총 9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대상자는 이영남(1954년생, 황계1리), 박상규(1928년생, 황계2리), 인기홍(1935년생, 송산1리), 나순교(1935년생, 송산1리), 윤만복(1938년생, 송산1리), 한규복(1933년생, 송산1리), 장윤국(1928년생, 송산1리), 김응환(1935년생, 송산1리), 강창원(1935년생, 송산1리)이며, 송산1리 인터뷰의 경우는 집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마다 인터뷰 하신 분들의 성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운 권력자로서 또는 직업군으로 능 관련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화산동 일대는 조선 초기부터 수백 년 동안 수원부 읍치였다.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에 의하면 수원부읍치는 문수당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체로 문수당면의 위치는 주산인 화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의 성황산, 남쪽의 남산으로 둘러싸인 정도라고 추측하고 있다.[3] 지금의 화산동의 경역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사된 바에도 화산동 일대 구읍치의 흔적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1789년에 읍치가 현재의 수원 시내인 팔달산 부근으로 이전하면서, 1792년에는 관아나 행정기관이 있었던 지역은 용복면에 합쳐지고, 나머지는 안녕면과 시봉면으로 편입된다.

기존에는 수원고읍성은 소규모 치성으로 알려져 있었는데,[4] 실측 과정에서 이보다 넓었던 것으로 밝혀져 고읍성의 규모와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5] 일제시기까지만 해도 융릉 아래 남쪽으로 많은 초석이 있었고, 확장된 84번도로 남쪽까지 이어져 있었다고 한다. 정남면 방향으로 흐르는 실개천에도 구명대왕교라는 다리와 표석이 있었고, 대왕교 남쪽에 향교터와 빙고터가 있었다고 하므로 이 일대가 과거 수원읍치의 중심선으로 추정된다.[6] 이처럼 화산동 일대는 구수원부였다.

게다가 화산(花山)은 수원부 읍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수원부읍치를 외호하는 진산(鎭山)이며 부의 주산(主山)이다. 진산이란 고을을 보호하는 산으로, 풍수적인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고을 전체를 대표하는 진산으로 읍치의 공간적 위엄성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수원도호부가 1789년 옮겨지기 이전까지 조선초기부터 사직단은 부 서쪽 5리, 성황단은 부 동쪽 5리, 화산 동쪽에 있었던 성황산(137m)에 있었다고 추정되고, 여단의 경우는 읍치의 북쪽에 있는 화산이나 그 부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 화산은 고을의 진산이며 사직단이 있었던 성황산으로 마을 내의 신성한 공간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 풍수적 개념이 덧씌워지면서 당대 발복의 길지이니, 음택풍수니 해서 화산이 가지는 신성성과 의미성이 강화되어 나타난다.[8] 실록에 보면 정조가 오래전부터 여러 군데의 길지를 조사한다고 나온다. 여주 효종의 영릉, 동구릉 영조의 원릉, 수원부 읍치가 있는 화산이 그 후보지인데 최종적인 이장 장소는 화산으로 결정되었다. 아무래도 선대 조상 묘역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던 영릉이나 원릉을 이장하고 원을 쓰기는 어려웠던 점도 고려되었던 것 같다. 화산은 효종 사후에도 왕릉후보지로 화산을 천거한 적이 있었고, 풍수상으로 "좌정한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국", "구슬이 서로 마주보며 하늘을 향하는 형국"인 길지라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화산의 신성성과 우월한 풍수적 조건은 현륭원을 이곳으로 이전시키고, 조선후기 격렬했던 정쟁의 한 소용돌이의 한 축에 위치하게 한다.

1789년 수원도호부의 읍치와 관아가 모두 현재의 수원으로 이전되고, 화산동 일대의 주민들은 조선시기 어쩌면 평범했을지도 모를 일상적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3)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역사편, 2005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4) 토루의 길이가 10㎞의 작은 치소로 1.3㎞ 정도의 소규모 읍성 규모라고 한다.

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005.

6)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역사편, 2005.

경험하게 된다. 전래부터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능이 설치되면서 이주를 해야 했고, 그에 따른 심리적 충격을 견뎌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현륭원 천봉사건은 이후 화산동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들의 기저(基底)에 바탕하면서 일제시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륭원 천봉과 구읍치 이전으로 크게 두 가지 변화를 겪게 된다. 하나는 농민들의 생존의 터전 변화, 두 번째로는 마을에 능과 관련한 새로운 직업군의 등장이다.

첫 번째로는 능이 설치되고 주변이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대대로 세거했던 조상의 땅으로부터 이전해야 했다. 조선시기 양반들은 보편적으로 촌락에 거주하고, 읍치에는 향리나 중인 이하의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니, 읍치 이전으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일반 농민이나 중인 이하의 하급관리들이었을 것이다.[9] 화산동이 역사와 전통이 유구한 것에 비해 동족마을이 발달하지 못하고 각성받이 마을이 된 것도 정조대에 능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마을들이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화산동 일대는 화성시 내에서 논의 비율도 높고 생산성이 높으며, 대지면적이 가장 넓은 좋은 땅이다. 그럼에도 대지주나 자작농이나 거의 없다는 것은 신읍치 이전과정에서 자작농 이상의 안정적 기반을 가진 농민들이 빠져 나갔으며, 이들을 대신해 국가가 대지주인 국유지였기 때문이다.

현륭원 주변이 국유지로 묶이면서 능 주변 사방 10리 안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주변을 신성한 지역으로 규정하여 금표(禁表)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막고, 능지기와 수호군을 설치하여 호위하게 하였다. 화소(火巢)지역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시켰다. 지금의 정남면 관항리 태봉산 능선상에 '외금양계(外禁養界)' 라고 음각된 비문이 있다. 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융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현륭원 경내를 표시하는 사방 10리 현륭원 구역이었음을 표시하는 비인 듯 하다.[10] 현재의 위치가 비석의 본래 위치라고 추정이 가능하다면 사방 10리의 경역을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융릉을 중심으로 정남면 관항리, 괘랑리 일대, 봉담읍 수영리, 매송면 야목리, 화산동 진안동, 병점동, 능동의 일부가 포함된다. 넓은 경역이 능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한편 화산에도 국릉치표(國陵置標)가 하록(下麓)에 있다고 하는데, 이 금표가 외금양계비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화산 능 주변에도 내금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외금양계비

이처럼 마을이 있었던 곳에 금표가 설치되고,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주하는 대대적인 국책사

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6.

1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 화성시,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416쪽, 2006.

업이 시행된 것이다. 당시 돈에 여유가 있으면 수원신읍치로 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안녕리쪽으로 많이 이주했다고 한다.[11] 이 일대의 땅은 대체로 국유지였고 사유지는 거의 없었고, 정남이나 양감으로 가면 사유지가 있었다고 한다.[12] 후대의 일이지만 안녕리는 단위부락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곳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도 많고 길이 좁아서 미로처럼 복잡했다고 한다. 또한 안녕리와 송산리 일대는 인구에 비해 땅이 좁았고 자작농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13] 상대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신읍치로 이전했고, 이주할 여유가 없었던 소작농이나 빈농들은 국유지나 용주사 땅을 소작지어 먹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게다가 능을 축조한 이후에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여 안녕리 · 송산리 · 황계리 등에 분산시켜 살게 했다고 하니 좁은 땅에 경작지가 부족했을 만하다.[14]

한편 사도세자의 원찰로 세워진 용주사(龍珠寺)도 대지주로 위세가 대단했다. 송산리 사람들 중에는 용주사 땅을 소작했던 사람도 있고, 대황교 주변에 용주사 땅을 권리금만 받고 구입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용주사가 99칸이었는데 1칸에 1섬지기(20마지기)였다고 하니, 그 위세와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용주사 땅은 화산동 지역보다는 안성과 평택에 땅이 많았다고 한다.[15]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등장이다. 현재에도 60대 이상의 마을 주민들은 조부나 선대가 능과 관련한 일을 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능과 관련한 구전이나 설화에서 박씨 · 김씨 · 최씨 등 다양한 성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많은 집안이 능과 관련 일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곳에서 8대를 거주했다는 홍창선 씨는 선대 조상이 능참봉을 하였으므로 참봉집 손자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으며,[16] 나순교 씨 아버지 나유근 씨는 능에서 근무한 능지기이기도 했었다고 한다.[17]

능참봉(陵參奉)은 종9품으로 능지기를 거느리고 능 주변을 관리하는데, 이들은 품계상으로는 가장 말단에 해당하였으나, 왕릉을 수호하는 능참봉의 위세는 대단했다. 구전에 의하면 "한 끼에 닭 한 마리"라는 말이 날 정도로 잘 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상주하면서 능의 보호와 관리를 담당하고, 능 주변 10리 내 경역에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는 일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겨울철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금표해 놓은 산이나 왕릉에 몰래 들어가 벌채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산송(山訟)사건이 특히 많았는데, 융릉의 경우는 왕릉이므로 함부로 벌채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1년에 몇 차례 허가된 날에만 땔나무를 해올 수 있었다. 일제시기와 해방 이후에도 1년에 몇 차례 '삭정기(삭정이; 살아있는 나무에 붙은 채 말라 죽은 작은 가지의 방언)'를 채취하거나 낙엽을 긁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거나 땔나무로 썼다고 하니, 땔나무가 늘 부족했던 농민들에게 능원에서 삭정이를 긁어 가는 것을 허가해주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능참봉이 가지고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11)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12) 홍창선 (화산초등학교 17회 졸업)

13)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14)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005.

15)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16) 홍창선 (화산초등학교 17회 졸업)

17) 나순교 (1935년생, 송산1리)

이외에도 능참봉과 관련한 이야기는 다양하게 전승된다. 능참봉이 당시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으리라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구전설화나 지명유래는 대체로 특정지역에서 주요한 사건이나 정치적 권력을 누리거나 유명한 집안에서 선점하여 전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조대왕과 지관 박생원이야기, 정조대왕과 명지관, 안녕리 마을 이름의 유래, 능위에 누운 능참봉, 과객 덕분에 살아난 능참봉,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 임금님 거둥이 스물아홉 번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당시 능참봉의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준다.[18] 또한 이곳 화산동 관련한 전설이나 민담이 모두 화산능 천봉과 관련해 있어, 당시 현륭원 이전이 가져온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지방에서도 민란이 벌어지거나 관리들의 탐하게 농민들이 저항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화산동 지역에서는 봉기의 대상이 현륭원의 참봉이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화산동 지역에서 실질적 권력으로서 능참봉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1891년(고종 28) 6월에는 현륭원의 원군(園軍)과 동민들이 봉기하여 현륭원 참봉 민병성의 교자와 의관을 훼손하고 관원을 결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륭원이 조성된 이후 수원유수 이하 관원들을 세도가가 독점하는 가운데 이곳 주민들은 능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민병성은 평소 수탈이 심하여 현륭원 화소(火巢)지역 내에서 함부로 많은 나무를 찍어내자 이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19]

화산동의 실제 수탈자로서 능 참봉이 등장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실제적 권력으로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능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생업 터전에 변화를 가져 왔으며, 관아가 이전되면서 권력 공백이 생긴 자리에 능참봉과 능지기라는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정조는 지극했던 효심으로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를 편하게 모셨지만, 그리고 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군주였지만 한편으로는 전통사회를 해체하고, 구읍치 수원의 자긍심을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2) 일제시대 수탈과 저항

화산동에서의 일제시기도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지주가 국가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로 바뀌었고, 1900년대 초반부터 확인되는 일본인의 농업이민과 1930년대 항일운동의 경험, 1940년대 전시총동원체제에서 근로보국대로 나가거나 공출, 징용 등을 경험해야 했다.

화산동의 대부분은 국유지로, 일제강점기에는 그 땅이 동척으로 넘어간다. 때문에 능 주변에 국유지를 소작하던 농민들은 이제 동척의 소작민이 되어야 했다. 자작농이 거의

18)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2005.

19)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역사편, 388쪽.

없었고 대부분 소작농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용주사 땅을 소작하는 것도, 중간에 일본인이 개입하여 소작을 부쳐줄 정도였다고 한다. 국유지나 동척이나 소작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일본농업이민이 증가하면서 좋은 땅을 그들이 먼저 불하받게 되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인 농업이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농업이주민 자격으로 들어온 이들은 조선인 소작인들보다 좋은 땅을 불하받아서 농사를 짓거나 농장을 경영했다.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았다.[20]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조선인들에게는 상당한 박탈감을 주었다. 농사지을 땅을 찾아 종친이 있는 황계리로 이주한 전주이씨 일가나 원통미에서 살다가 홍수로 신통미로 이주한 박상규 씨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긴 했지만, 동척 땅을 소작지어야 했던 이곳 주민들의 심정은 쉬이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화산동 일본인이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황계1리에 일본인 농장이 있었고,[21] 안녕리 일대에 많이 살았다고 한다. 황계2리와 송산1리에는 없었다고 한다.[22] 1909년에 이미 일본인이 안용면에 거주하면서 농장을 경영했던 기록이 발견된다. 송본주계(松本主計)라는 일본인은 1890년생으로 일본 애지현(愛知縣) 단우군(丹羽郡) 낙전촌(樂田村) 출신으로 1909년에 한국으로 건너와 수원 안용면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23] 또한 1925년 9월 14일자 『동아일보』에 안용면에 있는 일본인 여자가 콜레라를 보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24] 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1920년 중후반부터는 이 지역에 일본인들의 내왕이 잦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농업이민자들은 동척에서 좋은 농사조건을 갖춘 곳을 불하받았으며, 농사일이나 소 등도 모두 일본인이 우선적이었다.[25] 일본인들은 주로 농사 · 양계 · 정미소를 했고, 일본인 가구수가 꽤 많았다고 한다. 용주사 뒷산인 성황산 부근(지금의 남수원골프장 인근)에 일본군이 비행장 주변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했었는데,[26]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인들이 이곳에 이주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인근 병점 온천 근방에도 일본인들이 있었고 대략 7~8호 정도가 거주했다고 한다.[27] 다만 비행장 주변 성황산에 주둔한 일본군, 경부선 병점역의 이점, 서울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척 소유의 넓은 농토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화산동 황계리에 비행장이 생긴 시기는 '지나사변' 이후이다.[28] 비행장이 건설된 부지는 수십 만 평에 이르는 조선방직 땅과 황계리 농토일부를 포함한 곳이다. 조선방직은 이곳에 목화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 목화밭만 있었는지 직물회사가 함께 운영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수원 평동에 선경직물이 있었고, 영등포에 김연수가 운영하던 경성직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료 공급처로서 목화밭이 있었고, 여기서 공급되는 것을 구매해 인근 직물회사를 운영했던 것 같다. 선경직물은 지금의 선경그룹의 출발점이 되었던 회사로, 최종현 회장이 해방 후에 적산을 불하받아서 시작된 것이

20) 일본인들이 미워서 일본 애들을 골탕먹이거나 담장 넘어가 복숭아 등을 몰래 따 먹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 박상규(1928년생, 황계2리), 송산1리 마을회관

21) 이영남 (1954년생, 황계1리)

22)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23) 『조선인사흥신록』에 의하면 1909년 약 20살 즈음에 한국에 들어와 안용면에서 농장을 경영했다고 한다. 1909년 2월 한국에 건너와 수원 안용면에서 농장경영 등을 한 후 1926년 12월 京城現物株式市場 중개인 면허를 받고 1932년 3월 朝鮮取引所 증권거래원의 면허를 받아 1935년에 이른다.

24) 『동아일보』 1925년 9월 20일자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25)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26)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27) 차학근 (1935년생, 2007. 1. 11. 오후 2시 안용중학교 교장실, 김세영 인터뷰)

28) 김지형,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2, 오상근 편.

다. 원래 황계리 맞은편 지역인 평동 지역에 있었다.

비행장 건설 예정부지에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은 주로 주변지역인 황계리와 안녕리, 송산리로 이주하였다. 한규복 씨는 11살 되던 해 일본이 비행장을 만들어 농지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한다. 땅값은 아주 적게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강제로 퇴거해 소개시켜 송산리로 이주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이때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반정리 일대로 이주했고, 안녕리로는 댓가구 정도 이주했다고 한다. 비행장 안에 살고 있을 때도 일본인 땅을 소작했었고, 송산리로 이주해서도 소작을 부쳤다고 한다. 그러다가 해방되고는 일본인의 적산을 점유하거나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적산을 불하받기도 했다.

비행장이 생긴 후로는 비행기에 놀러가기도 했다는데, 일본 전투기는 하야부사라고 했는데,[29] 경운기 시동 걸듯이 원동기를 돌려서 움직이게 했던 기억이 있다고 한다. 철없던 시절 B29전투기가 시커먼 연기를 내는 것이 신기해서 학교방공호 안에서 바라보던 어린시절 기억이 있었다고 한다.[30]

비행장에는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열차가 비행장 부근을 지날 때는 그 쪽 커튼을 모두 내리고 지나가야 했다고 한다.[31] 195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이 모두 농경지여서 덜했으나,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군사시설에 관한 여러 제약조건으로 건축물 고도제한과 재산권침해로 건축 관련 소송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1940년 전시총동원체제기로 접어들면서 일제는 조선 전 국토에 걸쳐 전쟁물자로 사용가능한 모든 것을 쓸어갔다. 숟가락에서부터 인력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화산동 주민들도 근로보국단 등의 강제 노역과 징용, 공출에 시달려야 했다.

근로보국단의 경우에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이 비행장 건립에 동원되었지만,[32] 인근 반월방죽(지금의 왕송저수지)이나 원천저수지에도 1달씩 나가기도 했었다. 공출도 심해 황계리 박상규 씨 집은 90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지었는데, 1년에 70가마 정도 공출을 당했다고 한다. 또한 생활용구인 숟가락이나 놋쇠 등도 공출의 대상이 되었고, 융건릉의 소나무도 공출의 대상이 되었다. 융건릉 주변에는 좋은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한다. 지름 1미터가 넘는 큰 나무도 많아서, 집집마다 좋은 절구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근동에서 그 정도 절구 가진 동네는 이곳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좋은 나무는 일본인들이 베어다가 전부 배를 만든다고 부산으로 실어갔다. 병점역까지 날라서 기차로 실어갔는데, 전쟁하는 배 만드는 재목으로 큰 나무를 많이 베어갔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이미 융건릉의 나무들은 거의 베어지고 없어졌다.[33]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웃음을 짓게 하는 재미있는 추억들도 있었다. 인근에 비행장이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많으니 전기와 우체국이 일찍 들어왔다. 전기는 수원전기회사에

29) 라창호,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 2, 정광희.

30)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31) 김지형,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 2, 오상근 편.

32) 김지형, 『수원증언자료집』 2, 오상근 편 ; 박상규(1928년생, 황계2리)

33) 강창원은 아버지가 산판을 해서 융건릉 안에 나무를 벌채했다고 하는데, 좋은 나무는 일제가 다 베어가고 없었다고 한다.

서 공급하는데 밤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고 아침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공급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우스개 소리로 "애 날 때 다 '전기다마'는 다 봤다고, 애 날 때 다마를 보고 나왔다."고 할 정도로 화산동 일대에는 전기가 일찍 들어왔다고 한다. 일제시기는 다른 지역보다 발전된 것 같았는데, 그 명성에 비해서 지금은 발전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다. 황계리 사람들은 "큰 새나 잡아가지" 하는데, 현재는 비행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살만 하지만, 그래도 주변 비행장은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이며 소리도 요란해서 큰 새나 잡아가줬으면 하는 희망이 들어있다.[34] 일본군인에 대한 기억과 성황산에 있었다는 무서운 호랑이에 대한 기억, 친숙했던 산천과 마을에 대한 기억이 잔잔하게 어려 있다.

어릴 적에 아주 이쁜 새끼 여우를 잡아왔더니, 어미 여우가 밤새도록 울어서 결국은 놔 주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토종여우는 무척이나 이쁘다고 한다. 어린 소년이 이쁜 새끼 여우한테 반해 데리고 놀 생각에 잡아 왔다가, 새끼를 잃은 어미 여우의 비통한 울움소리에 놓아 주어야 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그때를 추억하는 소재거리이다.[35]

일제시기가 지속되면서 조선사회 내부에서도 일제 지배체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세력과 이를 거부하고 조선독립을 위해 항거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났다. 이곳 화산동에서도 이러한 양상들이 확인된다.

화산동 일대에 대표적인 친일파로는 최재엽(崔在燁)이 있다.[36] 최재엽은 중추원 참의, 수원읍의원 및 수용수리조합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금융업에 관련하고 있다. 1929년에는 농상공자금을 유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성흥산(華城興産)에 중역으로 참여했다. 화성산업은 당시 수원·화성 일대의 대지주나 유지들이 대부분이 참여해서 만든 회사로, 사장은 이광현(李光鉉)으로 되어있고, 이사로는 양규봉(梁奎鳳)·홍사훈(洪思勛)·한광호(韓光鎬)·이○○(李○○)·차준담(車濬潭)·최재엽(崔在燁)이며, 감사로는 권태동(權泰東)·이정규(李楨圭)로 이 일대 경제권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자본을 대고 금융신탁사업을 하고 있었다.[37] 또한 1930년대 중반에는 일본인이 회장, 사장으로 있는 경기산업(京畿産業)의 상무이사로도 활동한다. 이 회사는 새끼 가마니와 기타 짚으로 만든 고공품(藁工品)의 매매와 제작 등 관련업무와 탄산칼슘·도분·마대 및 이에 속한 상품의 매매와 위탁매매를 전담했다.[38] 최재엽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작성한 친일인명사전에 중추원 인사로 등록되기도 했다.

친일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안녕면장이었던 김남소(金南韶)를 들 수 있다. 그는 1911년~1939년까지 안녕면장을 지냈다.[39] 1907년에는 화성금융조합(華城金融組合)을 설립하여 금융신탁업을 하기도 하는데, 화성금융조합은 해방 후까지도 화성·반월·의왕일대에서 활동이 확인된다. 이 회사는 화성흥산과 더불어 화산동 일대

34) 이영남 (1954년생, 황계1리)

35)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36)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 편.

37)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

38)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5년판).

39)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1911년~1939년까지 면장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다른 사람이 면장을 1911년과 1914년에 면장임명과 면직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아, 김남소의 안녕면장 역임은 지속적이었다기보다는 1940년 직전까지 여러 차례 면장을 역임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듯하다. 어쨌거나 1939년 전시총동원체제 이전까지 면장을 역임하는 김남소는 일제의 지배질서에 순응하는 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최재엽의 동생인 최덕규란 인물은 당시 최오장이란 별칭으로 불렸으며, 동척의 마름으로 화산동, 특히 안녕리 일대에서 실질적인 권세를 누렸다고 한다. 오장은 중앙군사조직인 오위(五衛)체제와 관련한 전직인지는 알 수 없다. 최재엽의 또 다른 동생인 최재준의 경우는 1932년경에 마루키 운송점을 경성에 열고 운송사업을 했으며,[40] 안녕리에서 소방대장을 역임하고 정미소를 운영했다. 최재준은 정미소 문제로 최씨 · 이씨 · 김씨 등 관련 친인척 간의 싸움이 마을 전체로 확대되면서 반민특위에 친일파로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재준은 적극적 친일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41]

이와 대조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체제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화산동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안녕리였다. 화성시 전반에 걸쳐 제암리 · 장안면 · 우정면 · 송산면 · 양감면 등 곳곳에서 격렬한 항일운동이 펼쳐지는데,[42] 화산동의 경우는 안녕리가 중심이 된다. 안용면 송산리 출신 목재상을 하던 나경섭(羅景燮)은 최익환이 주축이 된 결사(結社)[43]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에 조선인들에게 소위 불온문서를 돌린 독립운동 혐의로 1919년 5월 23일에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서 심문을 받는다.[44] 1926년에는 김웅진(金雄鎭)의 수원고등농림학교 맹휴사건이나,[45] 1933년 백봉흠(白奉欽)이 관련된 안녕리우체소 메이데이 격문사건 등이 있다.[46] 백봉흠의 경우에는 1932년[47] · 1934년[48]에 걸쳐 적색노동조합 격문사건으로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관한 위반으로 검거되거나 기소중지되는 등 이 지역에서 활발한 항일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친일행적은 악질이었다고 하는 최덕규 · 최만순 · 최수길 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을 기억하는 송산리 사람들이나 박용근[49]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최씨 집안에 대한 나쁜 기억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실제로 해방 후 정미소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친일이라거나 인심이 나쁘다거나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최재엽은 1936년 1면 1개교 설치 운동 당시에는 수원중학에 설립비 기부모집을 결의하기도 했고,[50] 박용근 씨 같은 경우는 최재엽 씨의 도움으로 수원읍이나 수용수리조합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다만 박용근은, 사진관을 했던 최수길이나 인척은 아니지만 같은 최씨라고 악행을 행했던 최만순은 악질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해방되고 좌우 대립과정에 화를 입히거나 화를 당하기도 했다. 여하튼 최씨들은 일제시기에 화산동 일대에서 대적할 만한 세력이 없는 독점적 지위를 누린 듯하다.

또한 중일전쟁 당시 안용면에서 헌금 · 헌납 · 위문금 등의 명목으로 황군위문연초(皇

40)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42년판).

41)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1, 박용근편.

42) 화성시 · 수원대학교박물관, 『화성지역 3 · 1운동 유적지 실태조사 보고서』, 2003.

43) 「怖告」라고 제목붙인 문서와 합해 4월 중순 이후 며칠에 걸쳐 피고 全協과 함께 인쇄하여 그 몇 부를 비밀리에 배포하였으며, 다시 별도의 선언서 · 경고문 및 「일본 국민에게 告함」이라고 제목붙인 불온문서 3통도 기초하여 널리 일본인 · 조선인 사이 각 방면에 반포하여 민족독립운동의 기세를 해외에 알리는 재료로 삼겠다고 해서 5월 16 · 17일경 피고 權泰錫과 함께 이를 인쇄하는 한편, 前記 진정서를 上海에 있는 동지의 손을 거쳐 파리 講和會議에서의 각국 위원 및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로 하고 渡航 비용 등의 조달을 얻기 위해 피고 李能雨에게 그 뜻을 알리어 다른 곳으로부터 출금하는 데에 노력하게 하였으며, 또 그를 통하여 피고 나경섭으로 하여금 노동자를 사주하여 조선인들에 대한 문서 배포를 맡게 하였고, 또 피고 金永喆을 시켜 일본인들에 대한 문서 배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나아가 다수 단원의 가입에 의해 단체 조직을 완료하고 안녕질서를

軍慰問煙草) 모집이[51] 이루어졌고 인근에서 지원병 혈서를 쓴 경우도 발견되나, 적극적인 친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수탈에 가깝다. 물론 이중에 자발적 친일도 있으리라고 보여지나, 당시 시대적 분위기로 보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3) 해방, 한국전쟁 때 이념 갈등

해방되면서 화산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간 좋은 땅과 좋은 경작 조건을 일본인들에게 빼앗겼던 조선인들은 땅을 되찾게 되었다. 때로는 임자없는 땅이나 집을 무단점유하거나, 적산가옥을 불하받는 경우도 있었다. 적산을 불하받은 경우 문서로 근거서류를 해주었으나 문맹자가 많기도 하고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52] 한규복은 동척 땅 12마지기를 불하받았는데, 아버지가 일어도 좀 하고 친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불하받은 것이라고 한다.[53] 일제가 물러가면서 화산동도 농지 소유 관계부터 재편된다.

이러한 양상과는 다른 형태의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화산동에 유명한 '정미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해방 후 정미소 이권쟁탈전으로 시작된 것이 한 마을 전체로 확대된 사건이기도 하다. 앞서 화산동 일대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최재엽 일가와 면장을 지낸 김남소 집안, 그리고 사돈관계에 있었던 이씨 집안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들 집안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최씨네는 중추원참의를 지낸 최재엽을 비롯해, 정미소 대표인 최재준 · 최덕기 · 최덕규 · 최덕현이 형제이고, 이씨들은 최덕현의 부인 이씨의 형제이며, 김씨 역시 당시 면장이던 김남소의 부인이 최재준 · 최재엽의 누이로 역시 사돈관계였다.[54]

일제시기부터 최씨네 일가는 이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해방 후인 1946년 경 최덕현의 부인 이씨의 형제들이 인근에 정미소를 세우게 된다. 이씨들은 최씨 일가가 싫어할 것을 염려해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단체등기를 내고 '신일사(新一社)' 라고 하고, 최씨 부인의 인척인 이은만(李隱滿)이 대표를 맡았다.[55] 최씨 쪽에서는 정미소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에 대한 상실 문제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한 주체가 사돈들과 마을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박용근 씨의 증언대로라면 최씨 일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도 많았었고, 인심이 나쁘다는 소리도 듣지 않고 있었기에 상당한 심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신일사가 생기고 기존의 최씨네 정미소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든 신일사를 이용하게 되었다. 지금 안녕중학교 앞에 있는 화산정미소는 조합에서 만든 것이라고도 하는데, 해방 전에 농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것이라고 하나 신일사인지는 확실하지

방해하려고 도모하던 중 관헌의 취체가 엄중하므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급거 上海로 도망하려고 하여 아직 일반에 대한 문서 배포를 하지 않았을 때 피고 李能雨로부터 돈을 구했다는 보고를 듣고 함께 출발하려고 하다가 검거된 자이다.

44) 羅景燮 신문조서(제1회) 당시 53세. 大正 8년 5월 23일.

45) 문서철명 검찰사무에 관한 기록(3), 1926년 7월 1일.

46) 1933년 6월 21일, 사상에 관한 정보철(2) 京高秘 제2391호의 1, 메이데이檄文事件 關係者 檢擧의 건 등으로 안녕리우체소(安寧里郵便所), 오산공립보통학교(烏山公立普通學校), 양산농민조합(梁山農民組合), 수원인쇄주식회사(水原印刷株式會社), 화성자동차회사(華城自動車會社)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21개 정도의 단체들이 관련되어 있다.

47) 소화 9년 3월 치안정황

48) 『동아일보』 1935년 2월 1일.

49)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 편.

50)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2일.

51) 『동아일보』, 1939년 12월 22일.

않다.[56] 이는 지역에서 독점적 권세를 누려온 최씨네 집안에 대한 도전이며, 최씨로서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일사 설립 이후 감정적 대립이 지속된 가운데, 1947년경 토끼뿌리 사건이 벌어진다. 토끼뿌리는 토끼산이라고 하는데, 융건릉 맞은편 대한전선이 있었던 자리이다. 토끼산 사건의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김웅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김웅진 패를 수원경찰서에서 기동대를 파견하여 잡으려 하자, 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같이 저항한 사건이라고 기억한다.[57] 이 사건은 정미소 이후에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어 좌우익으로 나뉘어 서로를 견제하고 테러한 사건이다. 당시 최씨네는 이승만이 주도하는 우익계 독촉, 이씨네와 김씨네는 좌익계인 민전으로 갈라져 싸운 것이라고 한다.

김웅진은 1926년 수원고등농림학교 맹휴사건이 있은 후 해방시점까지 항일투쟁경력이나 독립운동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안녕리에 치안대를 조직하여 화산국민학교에 본부를 두고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같이 활동한 인물들이 항일 운동에 적극 가담해서 형을 살거나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치안대는 단장 김웅진, 재무부장은 박용금, 치안대 정예는 김귀진 · 김대진 · 백태흠 · 이은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8]

토끼산 사건 이후에도 양측이 테러를 주고받고 하던 사건이 수차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죽기도 했다. 1947년~1949년경 우익계 독촉과 대한청년단에서 민전 결성식과 조직대회 장소를 습격하는 등 지속적인 테러가 있었다. 안녕리 사람들이 특히 많이 다쳤고, 황계1리, 양산리에서도 좌우의 대립이 심했다고 한다.[59] 황계리에서는 한종희가 빨갱이로 몰려 다쳤고, 송산1리에서는 나대근은 좌익의 근거지였던 이왕직 사무실에서 낫으로 심하게 당하고 나서 죽음을 당했고,[60] 박용근의 아버지도 좌익으로 몰려서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한다.[61]

이곳 좌우익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건들이 많았었다고 기억한다. 토끼산이 지금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고 새로워졌지만,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묵묵히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곳이다.

마을사람들은 힘을 합쳐 정미소를 세운 저력을 바탕으로, 1948년 제1대 국회선거의원 선거에서 신일사에 관여한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김웅진을 당선시켰다고 하다. 김웅진은 김남소 면장의 아들로, 최씨 정미소 대표인 최재준의 조카이다. 당시 안녕1리는 가구수가 100호 정도로 많았으므로 주민들이 합심하여 김웅진을 당선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62]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웅진은 1948년 8월 8일 친일파 민족반역자특별법 기초위원회를 발의하고 위원장에 선출되었다.[63] 그러나 친일파들은 당시의 실권을 쥐고 있었으며,

52) 홍창선
(화산초등학교 17회 졸업)

53) 한규복
(1933년생, 송산1리)

54)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55)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56)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57) 나순교
(1935년생, 송산1리),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58)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59)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이 근방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양산리 좌우익 대립이 많았다.

60) 나순교
(1935년생, 송산1리)

61)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62)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 김시중은 김웅진의 당선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1949년 5 · 10선거 때 그래도 친일 행적을 덜한 사람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독촉 등에 가입하거나 반동짓을 하지 않은 김웅진이란 이가 출마하자 분위기가 그 사람 해주자 해서 당의 지시와 관계없이 당선시킨 경우라고 한다.(남로

이들의 저항은 거셌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친일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시대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일파들이 법망을 빠져 나갔다. 실제로 피의자로 조사된 사람들은 682명에 불과했고, 그중에서 41명만이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실형을 받은 자는 15명, 사형과 무기는 2명 뿐으로 실형자도 대부분이 고등계 형사들뿐이었고 당시 핵심적인 반민피의자는 무죄 또는 병보석으로 석방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본질적으로 반민특위의 법적 · 제도적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친일관련 자들의 저항이 상당하여,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였으며 국회프락치 사건과 같은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냈으며, 특별 재판부 자체에도 친일 숙청에 적당하지 않은 인물들이 섞여 있어서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 퇴색시켰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친일파 처단이 한계에 부딪히자 특별재판부는 7월 공소시효 문제를 계기로 반민특위 추진세력이 사임하고 재판부가 친일파 숙청에 소극적인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게 된다.[64] 이러한 현실에서 김웅진도 1949년 7월 7일 특별검찰관을 사임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3천만 민족에게 위임받은 신성한 사업을 3천만 민족의 기대에 보답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8월 30일까지라는 짧은 기간에 이 법을 운영의 완수를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65]

김웅진은 자신의 외삼촌인 최재준을 반민특위에 회부하였다. 최재준은 안녕리 소방대장 출신으로 친일 행적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때문에 김웅진의 이러한 조처는 양 집안 사이를 더욱 악화시켰고, 한국전쟁까지 지속된 갈등으로 양 집안은 쇄락하였으며 김웅진 의원도 한국전쟁 당시 납북 또는 월북하면서, 해방 후 5년 동안 지속됐던 정미소 사건과 좌우익의 대립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다. 그리고 양측 정미소는 1954년경 태안농협이 생기고 여기에 흡수처리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66] 현재 화산동 일대는 최씨, 김씨는 다 떠나고 없다고 한다.

1950년 화산동도 한국전쟁의 전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이곳 화산동에는 전투비행장이 있었고, 1번 국도와 경부선이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미군과 인민군의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었다. 일제시기부터 성황산은 비행장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주둔했던 곳으로, 한국전쟁 시기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었고, 오산 북쪽 양산리쪽에는 인민군이 위치해 있었다. 혹은 토끼뿌리가 경기좌익의 근거지였다고 하므로,[67] 이 부근에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었다. 비행장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 지역의 폭격 피해는 대단했다고 한다. 비행장이 있었던 관계로 미군이나 인민군이나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이었다. 인민군이 송산리를 거쳐 쳐들어갔으나 물러날 때 미군이 원거리에서 함포를 사격하여 양산리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 것이라고 한다. 비행장 부근에 아군이나 적군의 폭격이 대단했다고 한다.[68]

당 지방당조직은 어떻게 화해되었나, 『역사비평』, 1989, 350쪽).

63) 『조선일보』 1948년 8월 8일. 제1회 국회속기록 제42호, 804~805쪽. 1948년 8월 17일에는 반민족행위특별처벌법의 대강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여기서 김웅진 의원은 헌법 제101조에 명명한 대로 해방 이전에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든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호소한다. 또한 1949년 5월 19일에는 반민족 행위자의 조속한 처단을 호소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64) 李剛秀, 「반민특위 特別裁判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003년 여름호(25집), 531쪽.

65) 1949년 7월 7일 제헌국회속기록.

66)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67) 인기홍 (1935년생, 송산1리). 당시 좌익들은 사상도 모르고 하던 것이었다고 한다.

68)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실제 수원비행장은 한국전쟁에서 국군 · 유엔군과 인민군 · 중공군 모두에게 핵심적인 전략기지로서의 뺏고 빼앗기는 격전지였다. 이곳에 대한 쟁탈전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쟁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인민군에 의해서 서울이 점령되자 6월 28일 육군본부를 수원 농업시험장으로 이전하여 국군작전지휘부가 설치된다. 다음날 29일 인민공군기의 대대적인 수원비행장 공습이 있었으며, 7월 4일 인민군이 수원을 점령한 후 수원비행장도 인민군의 차지가 되었다. 이후 9 · 18 수복으로 유엔군은 9월 21일에 수원을 다시 탈환하며, 22일에 가서야 2개월 17일 만에 수원비행장을 다시 장악할 수 있었다. 수원비행장은 미군에 의해서 10월 1일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며, 유엔군 수송과 보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1951년 1 · 4후퇴 시 유엔군은 수원비행장이 적에게 이용될 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파괴하였고, 이어 1월 7일 중공군에 의하여 수원 지역이 점령되자 다시 공산군에 의하여 수원비행장도 장악된다. 이후 3월 18일 유엔군이 서울을 재탈환 시기에 와서 수원비행장 역시 유엔군의 차지가 될 수 있었다.[69] 수원비행장은 38도선을 경계로 가장 북단에 있는 전투비행장으로서 양측 모두 가장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중요성으로 인해 비행장에 대한 공습과 폭격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때문에 이곳 비행장 인근의 마을은 폭격 피해가 심했다.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에 지속된 좌우 이념대립의 산물이다. 때문에 전쟁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좌우 대립은 극적인 상황으로 전개된다. 전쟁초기 인민군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고,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는 좌익부역을 하거나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처단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황계1리는 인민위원회나 좌익이 많아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았고,[70] 한편 전쟁 중에 인민군이 비행장 근처 성황산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했는데, 미군은 근접했을 때는 공격하지 않고 멀리 도망치자 함포로 무차별적으로 포격했다고 한다. 그래서 양산리 마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같은날 제사가 60여 집이나 된다고 한다. 이때는 좌익뿐 아니라 악질로 소문난 친일배들도 죽음을 당했다. 악질로 소문난 최수길의 아들이 죽음을 당했으며, 최만순이라고 악질이었던 자에 의해 김웅진의 아들과 큰부인은 안녕리에서 처참하게 죽었다고 한다.[71] 최씨네는 김웅진을 빨갱이로 몰아 붙였으며, 김웅진은 한국전쟁 때 납북 또는 월북하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 후에 지속되었던 좌우익의 대립이 한국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화산동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던 집안이 몰락하고, 전쟁 중에 상해를 입거나 월북(납북)됨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기미를 보인다. 물론 그렇다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거나 기억에서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후에는 대립현상은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6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97.

70)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71)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편.

전쟁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재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농협이나 마을회관 등을 건설하면서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려는 노력을 벌였다. 안녕리에 단위농협이 생긴 것은 1954년 경으로 조합원이 약 100여 명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였다. 농협은 각 리별로 추진되었으며, 태안단위농협장은 후일 태고종 총무원장을 지낸 박승룡이 맡았다. 태안농협에서는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정미소를 새로 정비하고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최씨네, 신일사 등을 흡수해 버렸다.[72]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재건을 위한 기지개를 켰다.

(4) 1960년대 5 · 16과 개척농장

전쟁이 끝나고 지역사회는 나름의 자생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화산동 일대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모색했으리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정조시대 능 이전과 수원부읍치 이전은 200여 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1960년대까지도 화산동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1950년 3월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 농지보상액과 상환액을 평년작의 1.5배로 지정하고 5년 동안의 상환기간 동안 평년작 30%를 지가로 상환하게 하였다. 하지만 귀속농지는 무상몰수 · 유상분배로, 한국인 지주의 농지는 유상매입 · 유상분배로 처리해 농민에게 불리했다. 귀속농지의 경우는 주로 동척이나 국유지로 여기서 소작하던 농민들은 땅을 몰수당하고 유상으로 구입해야 했다. 지주들은 소작지를 팔아 버리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해 몰수 개혁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많았다. 그러나 지주의 경우도 유리하지만은 않았다. 농지 매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가증권을 받았는데,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후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헐값으로 넘기거나 받았던 권리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불리를 당한 경우도 많았다. 화산동에서도 국유지(당시 동척땅) 대부분을 불하받아서 월부금처럼 상환했는데 임야와 산이 대부분이었다.[73]

힘든 시절을 겪으면서도 마을을 지킨 화산동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 왔다. 5 · 16 군사쿠데타 이후에 '개척농장'이라고 해서 제대군인들에게 화산동 일대의 땅을 3원 또는 6원씩 불하해 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74] 1960년대 아주 좋은 땅은 마지기당 200원, 중급 땅 150원, 하급이 120원에 거

개척농장 이정표

72) 한동민, 『수원의 근현대 증언자료집』 1, 박용근 편.

73) 이영남 (1954년생, 황계1리)

74) 윤만복은 3원, 홍창선은 6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래되었던 것에 비해 실로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75]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소위 '개척농장' 사건이다.

1960년대 초반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는 제대군인들이 낙농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화산동 일대 국유지를 불하해 주었다. 제대군인들은 주로 외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불하해 준 땅은 안룡초등학교 뒤 논부터 융건릉 건너편 지금 안녕리 남산일대의 공장지대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초기 개척농장을 불하받으면서 들어온 사람도 몇몇은 있으나, 불하받고 바로 팔고 나가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원래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닌 탓에 견디지 못하고 일찍 이곳을 떠난 사람도 많았다. 개척농장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간부 후보생이나 직업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을 강제로 제대시키면서 이곳에 토지를 불하해 준 것이라고 한다.[76] 개척농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별자리나 상사 이상의 사람들로 당시 군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강제로 제대시키고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추측하기도 한다.

화산동 일대 사람들이 동척 땅을 소작해 먹던 곳이었는데, 국가에서 이를 일부 보상금만 주고 농민들을 내몬 것이다. 그래서 개척농장을 불하받은 사람들과 싸우기도 많이 했다고 한다. 아무리 소작이긴 해도 3원에 경작권을 강제로 수용당하자, 이에 격분한 원작인들은 낫을 들고 싸워서 그나마 대토를 받았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토는 멀리 남산공단 부근에 주기도 해서, 안녕리 사람들과 개척농장 사람들은 갈등이 심했다고 한다.[77]

게다가 능 주변 500미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5 · 16군사쿠데타 이후에는 권력자들에게 능 바로 앞까지 농지를 불하해 주었다고 한다.[78] 화산 서쪽 봉우리 아래로 수만 평이 다 정부 땅인데, 사실 국유림으로 구황실재단 재산인데 그것을 준 것이라고 한다. 그 큰 화산을 김형일 · 조흥만 두 사람이 먹어 치운 것이라고 한다. 김형일은 국회의원으로 야당총무였고 조흥만은 여당이면서 치안국장을 하던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79] 화산 안녕리 들어가는 곳은 조흥만이 먹어버리고, 그 뒤 신밭 있는 곳은 김형일이 먹어버렸다고 한다. 국회의원 김형일은 그 땅을 받고는 3선 개헌을 적당히 해주었다고 한다.[80]

김형일과 조흥만이 큰 땅 덩어리를 불하받고, 나머지 땅들은 제대군인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누대를 살았어도 자기 땅 하나 가지지 못하고 소작만 할 수밖에 없었던 화산동 사람들에게 개척농장은 또 하나의 아픔이었다.

화산동에 또 하나의 사건은 1966년 11월 1일 존슨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다.[81] 존슨은 먼저 군부대를 방문하여 격려한 다음 태안읍을 방문했다. 존슨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병점에서 안녕리까지 평토정리와 경지정리를 최초로 실시했다.[82] 존슨 대통령의 방한 한 달 전에 백악관 보좌관이 와서 방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비밀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83] 존슨은 헬기를 타고 왔는데,

75) 나순교 (1935년생, 송산1리)

76)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나순교 (1935년생, 송산1리)

77)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78)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79) 『동아일보』 1961년 5월 17일. 臨時警察幹部 治安局長에 曹興萬准將.

80) 라창호, 『수원 근현대 증언자료집』 1, 이득성 편 ; 『동아일보』 1969년 7월 29일. 조흥만과 김형일은 삼선개헌 저지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당시 신민당 조흥만 · 성락현 의원은 개헌 저지 전열을 이탈하여, 개헌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다.

81) 당시 미군은 존슨이 방문을 기념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다고 한다.(원구병), "http://www.defence.co.kr/bbs/bbs.cgi?db=divisioncpkf&mode=read&num=142&page=0&ftype=6&fval=&backdepth=1"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외국순방과 존슨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홍보 영상을 볼 수 있다.

82)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83) 차학근 (1935년생, 2007. 1.11.

헬기의 프로펠러 바람에 기왓장이 멀리 날아가기도 했다고 한다.[84] 이때를 기념하여 안용중학교에 존슨동산으로 지정하고 영원히 기념하는 뜻에서 비를 새겼다. 1966년 존슨 방문 이듬해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존슨동산을 방문했다고 한다. 차학근은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으며, 민생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골몰하던 모습이 인상에 남았다고 한다.[85]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다른 지역과 형태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는 이장과 부녀회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장은 다 자기 돈 쓰면서 했다고 한다. 1년에 논 5마지기씩은 팔아해 했다고 한다.[86] 이장세는 196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1년에 보리쌀 7되 또는 1말씩을 했다. 그리고 부녀회 활동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로 고물 주워 팔기, 폐품수집, 구판장 활동, 절미운동 기금운동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주기도 했고, 산에 소나무 심기도 했는데 앞산의 소나무는 그때 다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행장이 가까워서 군인 위문 활동도 많이 했다고 한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을 지을 때 강돌을 주워서 건물 재로로 쓰기도 했다고 하니 어려움을 짐작할 만하다.[87]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초가에서 슬레이트(slate)로 바꾸고 재래식 화장실 개량, 도로포장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부역의 경우는 통 · 반별로 돌아가며 했다고 한다.

기타 기억나는 사건으로는 1972년 사라호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쳤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큰 비만 내리면 물이 넘치곤 했는데, 다행히 큰길 쪽으로만 넘쳐서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88]

(5) 보전과 개발의 갈등

화산동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외지인의 유입, 생업환경의 변화, 그리고 택지개발로 마을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등 다양하다. 복합적이지만 이런 모든 사안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현재 화산동은 태안 일대와 용주사 앞 등 한창 새로운 주거지 개발에 한창이다. 원래 태안일대는 논의 비중이 제일 높으며, 가장 큰 대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화성시 내에서도 곡창지대이다. 또한 대지가 넓어서 제조업 공장비율도 높다. 최첨단급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하여 700여 개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으며 화상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및 도로망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의 신도시로 급부상 되는 지역이다.[89] 또한 경부고속도로, 1번 국도, 경부철도가 관통하여 서울 등 대도시와 연결이 편리하고 수원시와도 인접해 있어 제조업체들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후 2시 안용중학교 교장실, 김세영 인터뷰)

84) 윤만복 (1938년생, 송산1리)

85) 차학근 (1935년생, 2007. 1.11. 오후 2시 안용중학교 교장실, 김세영 인터뷰)

86)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87) 이복난 (1929년생, 황계2리)

88) 이영남 (1954년생, 황계1리)

89)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읍 · 면 · 동」, 『화성시사』 건, 2005, 113쪽.

그러나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도시개발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문화재구역과 전투비행장이 있어 주변 건물이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에는 어려움이 있다. 200년 전의 사건이 현재를 구속하는 형상이다. 화산동의 도시발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과거 200여 년 동안 현륭원 천봉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떨쳐 버리고 새로운 인연을 창출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미 도시화가 진전되어 환경이 파괴된 다른 도시보다 미래지향적 산업인 친환경적 농업 등을 구현할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능과 주변 문화유적을 개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재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화산동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공장용지 면적의 증가이다. 제조업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대지이용 부분에서 공장용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나, 공장 수요를 계획적으로 구획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화성시 전역이 공장슬럼화 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90] 물론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조업체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이 가지는 수출이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이곳에 상주하고 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다. 화산동 일대의 질적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충족시키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지금 용주사 일대와 태안지구에 걸쳐 택지개발사업이 한창이다.[91]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토지 개발에 따른 토지의 사유화와 도시형 범죄의 증가이다. 대표적인 사건이 만년제의 사유화와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만년제는 정조가 화성의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백성들의 생활은 안정시켜 번영을 꾀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이다. 게다가 문화재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저수지가 매입되어 개인사유지가 되었다. 1996년에 사유로 등록되었으나, 현재 화성시에서 이를 다시 환수하여 문화유적으로 남기고자 노력중이다. 만년제가 메워진 시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한다. 어떤 이는 20~30년 전부터 그랬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최근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서 나온 토사를 만년제에 부어 매립시킨 것이며, 이것이 후에 사유화가 된 것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문화재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하여 사유화되었다는 점이다. 만년제 부근에는 작인들이 저수지 방죽 땅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땅을 200평씩 불하 받은 것 같다고 하나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없다고 한다. 현재 만년제를 사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씨로 알려져 있다. 어떻게 그가 문화재 구역을 사유화 하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 메워진 그곳에서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다만 아들과 사위가 법조계에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다.

정조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만년제가 사유화되고, 특정 개인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애초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저수지를 만들었던 정조의 본

90)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읍 · 면 · 동」, 『화성시사』 건, 2005, 419쪽.

91) 화성시사편찬위원회, 「읍 · 면 · 동」, 『화성시사』 건, 2005, 419쪽.

래 목적에도 위배된다. 현재 경기도에서도 용주사와 융건릉 사이 부지를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중에 있다.[92]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지만 문화재 및 녹지 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도 차원에서 주택개발 계획을 수정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미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 마무리된 시점이라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도시형 범죄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는 화성연쇄 살인사건이 있다. 20여 년의 세월 속에 미제로 남아 있는 사건으로 여전히 이 지역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황계리에서도 1리 점말에 피해자가 있었고,[93] 이 일대와 수원시 오목천동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아직도 그때의 기억은 생생한 현재의 것임을 되새겨 주기도 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모두 혐의자가 되었으며, 어제까지만 해도 절친했던 이웃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나다니지도 못했다. 여성의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남성들은 잘못 나갔다가 쓸데없는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적막한 시골의 저녁이 더욱 음습해졌을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지금도 해가 지면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간혹 불빛이 보일 정도로 조용하고 어둑어둑하다. 이 사건은 화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중의 하나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과 방안을 내야 할 것이다. 자구책으로 '시민방범순찰대'를 꾸려 야간 순찰활동에 나섰으며, 관내 특히 치안 취약지구를 차와 도보로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94]

그러나 현재를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마음의 고향을 빼앗긴 것이다. 신도시 개발은 토박이들의 고향을 앗아갔다.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가 이젠 기억으로만 남아 있게 되었고, 추억을 공유하던 사람들도 사라져 어느덧 낯선 이들로 채워졌다. 오랫동안 지역 환경과 삶의 방식을 주도하던 이들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증가한 아파트와 빌라촌 사람들은 잠시 살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익숙해짐의 다른 표현이다. 빌라촌 사람들은 익숙해질 때 즈음에는 새로운 곳을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대로 사용하던 익숙해진 산길이나 소로길이 불편해졌고, 더 이상 수원장이나 오산장으로 하루 십리 길을 걸어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길은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졌다. 들판 끝에 다른 동리가 보여서 한나절 걸어갈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사라지고 이젠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거리감도 공간감각도 없어져 버린 지 오래이다. 불편했던 소로길이 더욱 그립고 아쉬운 것은 그 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지인의 유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익숙했던 고향산천과 어릴 적 동무들, 동구 밖 풍경이 많이 사라진 것이다. 지역민들은 도시적 개발에 대한

92) 『경기일보』 2006년 12월 6일.

93) 박상규 (1928년생, 황계2리), 이영남 (1954년생, 황계1리)

94) 『경기일보』 2007년 1월 30일. 「'안전한 도시' 화성 만든다」.

기대감과 전통과 문화에 대한 보전이라는 이중적 심리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중이다.

화산동에는 200년 전의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고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현륭원이 들어서면서 좋은 땅에 농사짓지 못하고, 그 땅을 내주고 나와야 했던 것이나, 능 주변 국유지에서 소작지어 먹고 살았던 기억, 일제시기 그나마도 동척의 땅에 소작을 부쳐 먹어야 했던 암울했던 시절, 항일과 친일이 좌익과 우익으로 이어지면서 반갑던 이웃이 친족이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 죽고 죽여야 했던 일, 한국전쟁 이후 재건의 노력이 한창이던 1960년대 목 좋은 땅을 모조리 제대군인이 불하받아 그나마 지어먹던 소작도 싼값에 빼앗기고 대토를 받아 나와야 했던 기억, 그리고 한참 후에야 개발이 진행된 것 등 어느 하나도 시대와 화산동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이 사건들은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사건은 돌출적으로 발생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역적 조건들이 배태되어 있다. 사건이 벌어지면 잠재해 있던 내면의식들은 사건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의 의식을 규정하게 된다. 마을 내에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가진다. 때문에 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발적이기보다는 그 지역사회가 포괄하는 사회적 결과물이다. 그래서 화산동에서 벌어졌던 다양한 사건들은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보편성을 구현하면서, 화산동이어야 하는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사건은 지역이 걸어온 역사적 경험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화산동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규정한다. 과거 사건들을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화산동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안녕리의 해방과 전쟁

한 동 민(수원시 전문위원)

(1) 안녕리와 해방정국

1) 안녕리의 8 · 15해방

해방은 일제 36년간 억압정치와 수탈에서 고통받던 우리민족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었다. 우리들은 '해방(解放)'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의 사진에서 당시의 감격을 보았다. 안녕리에서도 그같이 기뻐하며 마을잔치를 벌이고 서로 얼싸안고 춤추며 며칠을 보냈을 것이다.

갑자기 해방이 찾아왔고 감격에 도취되어 며칠이 지나는 동안 민생과 치안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9월 7일까지 약 20일간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안녕리 · 송산리의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 '치안대(治安隊)'를 만들어 마을을 보호하고 스스로 치안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가장 발빠르게 앞장선 사람이 김웅진(金雄鎭; 1905~?)을 비롯하여 박용근 · 김대진 · 백태흠 · 백봉흠 · 이은성 등을 중심으로 한 청년들이었다. 당시 이러한 자치적인 치안대는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자경대(自警隊)' · '자위대(自衛隊)' 등으로 불렸다.

안녕리 치안대 대장으로 선출된 김웅진은 안녕리 사람으로 면장을 지낸 김남소(金南韶)의 아들이다. 김남소는 1911년 6월 2일 수원군 안녕면장(安寧面長)을 시작으로 1914년 지방행정 개편에 따라 안녕면이 안룡면이 바뀌면서 다시 1914년 4월 1일부로 수원군 안룡면장(安龍面長)이 된 이후 1939년까지 안룡면장이었던 인물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정 주년 기념 표창자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일제시기 면장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으로 일제의 정책을 관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이다.

김웅진은 서울 중동학교(中東學校)를 졸업하고 전국 수재들이 모인다는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서울농대 전신)를 나온 인텔리였다. 수원고농 재학 당시 독립운동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그는 졸업 이후 안녕수리조합(安寧水利組合) 기사(技士)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또한 합명회사 동영사(東榮社) 사장, 합명회사 김농장(金農場) 전무이

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 황해도 지역에서 토건업에 종사하다가 고향에 돌아와 해방을 맞게 되었다는 것과 연결된다. 당시 그의 나이는 가장 활동이 왕성한 40대 중반이었다.

안녕리 입구(1952)

안녕리 치안대 사무실은 송산3리에 위치한 일본인이 다니던 안녕심상소학교 빈 교실에 차려놓고 대원들이 모여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냈다. 어느 날 김응진 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원경찰서에서 경찰들이 와서 갑자기 치안대원들을 모두 연행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응진은 경찰서로 달려가 안녕리 치안대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단체임을 해명하고 대원들을 무사히 귀가시키기도 했다고 한다.

안녕리 치안대도 수원경찰서의 감시 대상이었다. 해방 후 수원은 좌우 세력의 활동과 갈등의 중심지였으며, 수원과 지리적으로 가깝던 안녕리도 이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미 군정청은 민간 치안대 조직이 정치조직과 연계되고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정명령 제28호 「사설 치안조직 해산령」을 발표하였다. 이에 안녕리의 치안대도 해산되어 진보세력과 보수주의자로 서로 나뉘게 되고 이념적인 갈등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안녕리의 진보와 보수세력들이 수원의 좌·우익 정치조직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그리고 안녕리의 좌우익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해방 후 수원의 정치상황은 수도 서울과 밀접한 연관 아래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해방 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수원군청을 접수하고 자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원군 인민위원회(위원장 박승극)는 조선공산당 수원군당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는데, 수원군의 20개 면과 1개 읍에 읍·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안룡면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해방 후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자유로웠고, 각 마을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자생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던 인물들이 사회주의 운동진영이었다는 점과 해방 후 이들이 정국을 주도했던 사실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1945년 12월 23일 '인민위원회 대표회의'가 수원극장에서 개최되었을 때 수원군의 각 읍면 대표 1,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승극 위원장의 개회사에 뒤이어 임시집행부 선거로 의장 이하영(李夏榮)·홍면옥(洪冕玉)·박지명(朴志明)·박승극(朴勝極) 등이 선

임되었다. 명예의장으로 여운형(呂運亨) · 허헌(許憲) · 김구(金九) · 김일성(金日成) · 김두봉(金枓奉) · 박헌영(朴憲永) 6명을 추대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국제정세 · 국내정세 · 군내정세 보고가 차례로 있은 다음 중앙인민위원회 김계림(金桂林), 경기도인민위원회 김향(金鄕), 경기남부 6개군 미국군정장관 메이저 킹 소좌, 수원군행정장관 웰핀 소좌의 축사, 노조 · 농조 · 청맹 · 국군준비대 · 부녀동맹 · 학생사회과학연구회 · 신흥문화동맹 대표의 메시지가 차례로 있었다. 또 구금 중에 있는 양감면(楊甘面) 인민위원장 장주문(張柱文)의 메시지가 있은 다음 군정협력에 관한 건 외 13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 5시 반 폐회하였다. 이는 송산면 사강의 3 · 1운동을 이끌었다는 죄목으로 12년을 복역했던 홍면옥과 종로교회 목사였던 이하영 등을 비롯하여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들이 총집합한 대회였던 셈이다.

이튿날인 1945년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수원극장에서 수원군 내 5만의 청년대표자대회를 개최하였다. 고종규(高宗奎) · 장보영(張保榮) 2명을 임시의장으로 선거하고 경과보고, 청총(靑總)대회 참석보고, 군인민위원회와 노조 · 농조의 축사에 이어 3 · 1운동 당시의 노투사(老鬪士)로 10여 년 옥중생활을 하고 나온 홍면옥(洪冕玉)의 격려사가 있은 다음 토의사항에 들어가 훈련 · 부인운동 · 국군 재정문제 등을 토의한 후 인민공화국 절대지지와 중앙인민위원회에 메시지를 발송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오후 4시 반 폐회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울과 수원 간의 통학생들이 1946년 1월 27일 '수원기차통학생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강령과 결의문을 발표할 정도였다. 즉 강령으로 학생의 명예를 참다운 국민운동 추진, 민족통일정권수립 요구, 심신을 연마하며 진리를 탐구하여 인격의 향상과 건국조선의 건전한 발전에 헌신,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학술연구 매진 등으로 하였다. 또한 학도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즉시 자주독립 요구, 매국노 소탕, 학문 연구의 자유, 언론 · 집회 · 출판의 자유 부여, 학생의 자유, 명예조국을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새로운 조국 건설에 대한 열망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녀동맹 수원지부 결성대회가 1946년 2월23일 오전 10시 수원극장에서 읍내급 군내 각 면 대의원 105인과 방청자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위원선거, 조선여성의 문맹타파의 건 등의 토의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선거된 임원으로는 위원장 임봉숙(林鳳淑), 부위원장 원호천(元浩天) · 황순학(黃順學), 위원 용옥식(龍玉植) 외 7명이었다.

인민위원회는 1946년 5월 민주주의민족전선(民戰)이 결성되면서 이에 수렴되는 형태를 취했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이 1946년 2월 15~16일 이틀간의 결성대회를 마친 지 불과 10일 만에 전국적으로 도 · 군 · 부 · 면위원회 등의 하부조직이 광범히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민전 경기도위원회 결성대회는 1946년 2월 26일에 열렸다. 도내 22군 21개 단체 대표와 지도적 인물 등 353명의 대의원과 수백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였다. 박형병(朴衡秉)의 개회사에 이어, 임시집행부 선거로 들어가 의장에 김재찬(金在燦; 개성) · 박남칠(朴南七; 인천) · 이하영(李夏永; 수원) · 김상혁(金相爀; 서울) · 정인숙(鄭寅肅; 안성) 등 5명이 선출되었다. 회의는 이정렬(李貞烈; 개성)의 일반정세 보고, 김오성(金午星)의 민족통일공작에 대한 보고, 선언강령의 낭독과 규약통과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재찬 외 195명의 위원을 선출하였고, 토의사항으로 (가) 민전의 확대강화 및 임시정부수립에 관한 건, (나)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에 관한 건, (다) 긴급경제대책에 관한 건, (라) 재정방침에 관한 건 등을 다루었다.

이후 임원 선출이 있었는데 상임위원으로 의장 홍면옥(洪冕玉) · 박형병(朴衡秉), 부의장 정인숙(鄭寅肅) · 신태범(愼兌範) · 이보운(李寶云), 사무국 국장 장칠경(張柒景), 차장 박승극(朴勝極), 서기부 부장 어수갑(魚秀甲), 부원 김종수(金鍾洙) · 백낙황, 조직부 부장 홍승유(洪承裕), 부원 박찬봉(朴贊鳳) · 최봉남(崔鳳南) · 추상선(秋相善) · 황종수(黃鍾秀), 선전부 부장 박승극(朴勝極), 부원 김경(金卿) · 박일(朴一) · 이경희(李瓊姬) · 김명수(金明洙), 기획부 부장 박형병(朴衡秉), 부원 박낭원(朴朗遠) · 이성호(李星昊) · 한기수(韓基秀), 재무부 부장 박남칠(朴南七), 부원 박종대(朴鍾大) · 김병현(金炳鉉) · 박승기(朴承基) 등이 선출되었다.

민전 경기도위원회는 수원의 이하영과 박승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하영은 제한제국기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에 참여하였고 종로교회 목사로 활동하였던 인물이었고 부인 이구례(이그레이스)는 수원 구천동에서 부인의원을 개설하였던 의사였다. 상임의장을 맡은 홍면옥은 3 · 1운동 당시 송산면 사강의 만세시위의 주동자로서 일제강점기 12년간을 복역하고 나온 독립운동의 표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또한 민전 경기도위원회 사무국 차장 겸 선전부 부장을 맡은 박승극은 일제강점기 수원을 대표하는 사회운동가로서 해방 후 조선공산당 수원군당 위원장을 역임한 실질적인 운동의 조직자였다.

당시 조선공산당 수원군당(위원장 박승극)은 결성 초기에 소수였지만 이후 신민당과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 수원군당(위원장 유주묵)으로 개편될 당시 당원은 약 300명 정도였다.

한편 우익성향의 전국 단위 조직이었던 대한독립촉성군민회(독촉)의 수원지부가 결성되어 각 읍 · 면지회가 조직되었고, 이승만의 정치노선을 지지하며 좌익타도를 명분으

로 내세운 대한독립촉성청년동맹 수원군지부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독립촉성수원부인회에서 1946년 3월 19일 하오 2시 수원 신풍학교 강당에서 독립을 간절히 원하는 '시국대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청중은 2천여 명이었고 연사는 독립촉성부인단 경성본부의 황기성(黃基成)과 박승호(朴承浩)였다. 산회 후 하오 6시부터 수원 구리루에서 독립촉성에 관한 시국좌담회가 있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를 둘러싼 좌우의 대립은 점차 격렬해지면서 이제 좌우익 간의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극장 사건이었다. 1946년 6월 16일 수원극장에서 개최된 경기지구 민주주의민족전선 대회를 우익단체 청년들이 습격한 일이 있었다.

즉 민전 수원위원회 주최로 1946년 6월 16일 오전 11시부터 민주주의 대강연회를 수원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연사는 부녀위원장 유영준(劉英俊), 재일본 조선인연맹 김ㅇ홍(金ㅇ洪), 민전 서기국장 이강국(李康國), 공산당 중앙위원 이현상(李鉉相), 부녀총동맹(婦總) 중앙위원 김명시(金命時) 등으로 청중 4,000이 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날 강연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트럭 7대를 동원하여 약 150명이 서울에서 내려와 잠복하였다가 이현상의 강연 중 소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행사하여 일시 회장은 대혼란을 이루었다. 그러나 수원지역 사람들의 지지와 경찰관의 제지로 강연은 무사히 끝마쳤다. 그들은 경관과 신문기자에게까지 폭력을 가하였는데, 그 중 20여 명이 검거되었고 수원경찰서에서는 대부분을 즉시 석방하고 그 중 3명만 구류 취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폭력을 행사한 쪽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수원읍의 적색반동분자들의 집단인 소위 민전(民戰)에서는 민심을 교란하며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반일의 앙모(仰慕)를 감살(減殺)시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가장한 이상한 강연회를 읍내 수원극장에서 열었다는 것이다. 즉 이날 연사는 허헌(許憲)·김원봉(金元鳳)·이강국(李康國)·이주하(李舟河)·김명시(金命時)·장건상(張健相) 등이라고 굉장히 선전을 하여 놓고 실상은 이강국과 김명시 기타 몇 사람이 와서 떠들었을 뿐이고, 허헌·김원봉 등은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어리석은 모략선전이었다는 것이다. 또 10시 정각에 개회하기로 된 것이 한 시간 이상 늦어서 11시 20분에야 겨우 개회하였으니 청중들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케 한 것은 적지 않은 죄악이며 게다가 식순에 국기에 대한 배례를 하지 않고 사회를 진행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기결례사건을 계기로 장내는 약간의 소동이 일어났고, 수원경찰 당국의 진압으로 강연회는 계속하여 진행되었지만 회장 경비를 담당한 수원경찰당국이 애국청년들에게 대하여는 가혹한 탄압을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연사 김명시가 '남조선 단독정부를 세우려는 자는 신의주 학생사건에서 쫓겨온 놈들과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다가 돌아온 자들'이라고 떠들고 있는데도 아무 제재도 없이 방임한 데 대하여 일반 애국 청년들은 그 경비책임자 수원경찰서 수사주임의 처사에 대하여 많은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입장과 내용이다.

마을과 앞방죽(1952)
안녕리 노루고개에서 병점쪽으로 본 모습. 방죽 끝으로 지서가 있었다.

당시 농민들에게 해방은 고질적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자작농이 되어 자기 농토에서 땀흘려 농사지어 떳떳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1~2년이 지나도 미군정의 농업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지역의 보수세력들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순진한 농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의 물결이 서서히 파고들고 점차 확산되어 갔다.

일제강점기 농업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농민들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의 3중고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이런 실정을 잘 모르는 미군정 당국은 농촌문제 해결에 미온적인데다가 일제 잔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과거 지배세력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농민들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갔다. 게다가 순진한 농민들 사이에 이념의 물결이 스며들어 농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점차 증대되어 갔다.

이에 1차 농지개혁은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의 법령 공포로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는 신한공사(동양척식회사 후신)가 관리하던 일본인 소유의 농지 등이 대상이었다. 한국인 지주의 농지를 대상으로 한 2차 농지개혁안은 1950년 3월 10일에 공포되었다.

2차 농지개혁안은 국가가 지주로부터 농지를 먼저 구입하는 형식을 취했고, 이어 소작 농민이 1년 수확량의 30%를 5년간 국가에 현물 상환하면 소작 농지를 농민의 소유로 전환시켜 주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김웅진이 안녕리 농민들 앞에 나섰던 것이다. 김웅진은 수원고농 출신의 농학도로서 농촌의 암담한 현실과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농민들을 가장 잘 이해했던 인물로 당면한 농촌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했을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온 백성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이는 그가 급진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당시 거의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장이기도 했다.

어쨌든 김웅진은 농민들에게 진보적이고 이상주의자로 보였을 것이고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많은 농민들이 그를 따랐다. 그래서 김웅진은 초대, 2대 국회의원에 연거푸 당선될 수 있었다. 김웅진은 한 시대 안녕리의 영웅이었다.

김웅진은 해방 후 군정청 농무부(農務部) 기사(技師)로 있었고 한때 토건업에 종사하여 동해토건회사(東海土建會社) 사장을 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독청(獨靑) 수원지구 고문 등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안녕리에서 독청(대한독립청년단)이라는 농민단체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독청은 안녕리의 보수우익단체인 대청(대한청년단)과 대항하였던 조직이다. 김웅진을 대표로 하는 독청에 많은 농민들이 후원하고 가담했다. 독청은 얼마 안 되어 이념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좌익단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반 농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무너지면서였다. 기존의 질서, 즉 일제강점기 이래 지배적 위치에 있던 지주들을 비롯한 친일세력의 우위권이 그대로 관철되는 상황에 대한 거부였다. 따라서 미군정이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생적 조직을 불법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조직도 극렬하게 대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농촌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지역의 좌익세력과 연계되었고, 그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들이 일제강점기를 버티며 싸웠던 지역의 신망을 받았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독청의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인 안녕리 돌고지의 김만길(金萬吉)은 젊은 시절 북지(만주)에 가서 많은 돈을 벌어 안녕리에 귀향한 인물이었다. 해방 후 자기과시용 비석을 안녕리 입구에 세웠다가 반대편 청년들이 깨부순 적도 있었다고 전한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노동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김웅진에게 고배를 마신 특이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독청은 농민들이 자기주장을 마음 놓고 펼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안녕리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모여들어 점차 세력이 확산되어 가는 단체로 등장하였다.

한편 일제시기부터 기득권을 향유했던 세력이 자연스럽게 우익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최재준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안녕리의 보수 우익단체인 대청(대한청년단)은 마을 앞 방죽 둑 끝에 있던 마을회관 겸 의용소방대 건물을 해방 후 접수하여 대청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방대장을 지냈던 최재준이 대청의 수장이 되었다. 대청의 구성원들은 지방 유지들 중 지주와 관리 출신들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해방 후 중앙의 고위층과 끈끈한 인맥이 형성되어 있어 배경이 막강했었다.

안녕리 주민들도 대청과 독청 두 단체를 중심으로 양분되었다. 마을 공동행사도 각각 따로 개최할 정도였다. 어느 해 추석날 독청 측에서는 줄타기 · 광대놀음을 열었는가 하면 같은 시간대에 대청에서는 사무실 앞마당에서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판소리 경연대회를 열었다. 또 두 단체의 기싸움도 대단하여 만나면 주먹싸움으로도 이어졌고, 떼지어 마을 골목을 헤집고 다니며 옛 군가와 구호를 목터지게 외치며 자신들의 세를 과시했다.

대청에서는 문제있는 좌익들을 사무실로 붙잡아 와서 몹시 두들겨 패는 일이 많았다. 또 경찰을 불러와 좌익들을 심문하고 고문했다. 어느 때는 대청 사무실이 좌익들을 가두고 매맞는 장소로 변해 그 신음소리로 인해 그 근처를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였다.

김웅진을 따랐던 농민들, 독청에 단순 가담했던 사람들까지 나중에는 좌익으로 취급받고 대청에 끌려가 곤혹을 치르는 농민들도 더러 있었다. 냉전시대 우익 아니면 모두 좌익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이 시대를 지배했던 때였다.

안녕리 좌익운동은 점점 거칠어 갔다. 1946년은 남한의 좌익운동이 가장 드센 해였다. 1946년 10월 대구항쟁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철도노조파업, 농민봉기가 잇달아 있었다. 1946년 5월에는 수원극장에서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 결성을 우익이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여파는 안녕리까지 미쳤다. 안녕리의 토끼산 사건도 아마 이 해에 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수원경찰들이 안녕리 좌익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대거 출동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이에 안녕리 좌익청년들은 이에 대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1대 1로 맞붙어 싸울 셈으로 한 손에는 고춧가루 봉투를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잡고 안녕리 아래 토끼산에 집결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과 부딪치면 먼저 얼굴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몽둥이로 때려눕힌 다음 토끼산 숲 속으로 도주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때 경찰들은 보통 곤봉만 갖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 트럭을 타고 나타난 경찰들은 총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다. 경찰의 공포 몇 방에 시위대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되어 수원으로 압송되어 갔다. 이것이 이른바 토끼산 사건이었다.

안녕리 37번지 일대
왼쪽벽만 보이는 집이 운선(雲仙)네 주점. 이영배 가옥, 박진수 가옥과 뒷방죽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황춘식 가옥, 정미소(신일사)가 있었다.

안녕리에는 일제 때부터 최씨 일가 소유의 정미소가 하나 있었다. 해방 후에는 최재준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몇몇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출자 형식의 '신일사(新一社)'라는 이름의 정미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출자자 명단은 이은성 · 이은만 · 박용근 · 박귀남 등 10여 명이었다. 안녕리 농민들은 같은 처지의 농민들이 출자 운영하는 신일사를 밀어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김웅진을 지원해 주었다. 이 정미소 신일사는 최재준과 김웅진 사이를 더 험악하게 만들고 비극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

2) 김웅진의 국회 진출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는 유엔 결의에 따라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해 임기 2년, 정원 2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좌익으로 일컬어졌던 사람들과 뜻있는 사람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당시 공산당과 인민당 등의 3당 합당으로 결성된 남조선노동당(남노당)은 5 · 10선거에 의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 투쟁을 진행하였다. 당시 매송면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던 투표함을 불태우는 등 수원군 차원에서 5 · 10선거 자체에 대한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녕리의 김웅진은 당시 경기도 수원 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되었고, 국회안에서 산업위원회 농림분과위원회(農林分科委員會) 간사로 활동하였다. 특히 반민족행위특별법(反民族行爲特別法) 기초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반민특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2년 후 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당선되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는 경기도 화성 을구에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 소속으로 당선되었다. 보성고보를 졸업한 안녕리의 박용근 씨는 당시 김웅진 선거 사무장을 지냈다.

당시 안녕리에서 최씨네 몇몇 집을 빼놓고는 거의 다 김웅진 선거운동원이었다. 같은 선거구 타 지역 면 사람들도 자진해서 와서 여비도 받지 않고 자기 밥 싸가지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해주었다. 김웅진은 친여계열인 국민당 후보였지만 사회주의 진영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어 결국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

정부수립을 전후해서 경찰조직의 강화와 공산당 불법화 조처로 좌익들은 숨어 지낼 때였다. 수원군에서 좌익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안녕리로 모여들었고 김웅진의 그늘 밑에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려 했던 것이다.

국회에 진출한 김웅진은 그의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갔다. 국회의원 김웅진의 괄목할 만한 업적 중의 하나는 국회 반민특위 위원으로서 활약상이다. 김웅진은 반민법을 발의했고 자신이 위원으로 친일파 청산 작업에 앞장섰다. 반민특위 위원장은 김상덕 의원이었고 처음 성과도 대단하였다.

친일파 1호는 화신백화점 소유주 박흥식이었고 이어서 경찰간부 노덕술, 문학인 이광수, 최남선 등 일제하 친일 행적을 했던 인사들이 속속 체포되었다. 그러나 정부 요직에 있는 친일파들의 역공이 만만치않아 결국 1946년 6월 6일 친일경찰들에 의해 반민특위 사무실이 습격당하고 특경대원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반민특위는 1년 만에 해체되었다.

체포된 친일파들은 대개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거창했던 친일파 청산작업은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반대로 반민특위 위원으로 있던 국회의원 10명은 빨갱이로 몰리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중앙무대에서 반민특위로 활동했던 김웅진은 안녕리의 최재준을 친일파로 몰아 반민법으로 입건했다. 사실 최재준은 뚜렷한 친일경력이 없는데다가 김웅진의 친외삼촌이었다. 반면 김웅진 아버지는 일제시기 면장을 역임하였던 김남소였다. 당시 면장은 식민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식민지 정책을 독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김남소는 일제강점기 시정기념 표창을 받은 인물이었다.

유교적 사고방식에 젖어 살던 농촌주민들은 김웅진을 비난하고 나섰다. 사실 최재준의 맏형 김덕규는 동척의 마름이었고, 최오장으로 불렸다. 둘째 형 최덕한의 아들 최수길은 일제시기 이미 수원에서 사진관을 열었다. 바로 위의 형 최재엽은 도의원이었다. 이들 형제는 모두 해방 전 사망하고 막내인 최재준만이 남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안녕리 마을의 명가집 사람들인 김웅진과 최재준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3) 독청단원 감금사건(수원극장 사건)

1949년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청년단체 통합으로 대한청년단 수원군단부 결단식이 수원극장에서 정부 요인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돌연 정체 모를 청년단체원 7~8명이 무장을 휘두르며 대통령 암살을 계획한 자라 하여 안녕리 출신의 전 독청(獨靑) 분단장 김만길(金萬吉)씨 외 37명의 단원을 극장 지하 화장실에 감금하였다. 이들은 오후 7시경 수원경찰서 마당에 이송하고 약 2시간 동안 취조한 다음 밤 10시경 버스로 다시 부평에 이송하여 극악무도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소위 전기취조라 하여 양손을 전기선으로 묶어 놓고 전신에 전기를 통하게 하여 실신상태에 빠지게 하는 한편, 권총을 목에 대고 물을 먹이고 공중에 달아매는 소위 비행기 취조를 하는 등 갖은 폭행을 다하여 전신에 중상을 가하는 혹심한 고문을 계속하였다 한다.

이들 무장세력은 또 다시 16일 밤 10시 반경 수원군 안룡면 안녕리에 침입하여 독청원(獨靑員) 14명(그 중 여자 4명)을 동리의 대동청년단 사무실에 납치하고 처녀 4명에게 횡포만행을 감행하였다. 이어 병점(餠店) 지서로 연행하여 하룻밤을 지새고 17일 오후 7시경 트럭에 전원 14명을 싣고 가면서도 지속적인 협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밤 10시 30분 경 부평에 도착하였다 한다.

창고에 끌고 들어가 여자들은 별실에 감금하고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든 후 손을 뒤로 묶고 송판의자에 눕혀 놓고 전신을 의자에 결박한 다음 물을 먹이는 고문을 가하여 한 사람에게 3~4 양동이씩 먹여 실신케 하였다. 이후 다시 옷이 입혀진 채 다른 창고에 감금되었다. 김만길 역시 고문을 심하게 당하였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 다시금 나체로 만

든 후 무기를 목에 대고 정조유린을 강요할 즈음, 헌병사령부의 군인들이 뛰어 들어와 그 자들의 손에 들었던 무기를 빼앗고 전부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트럭에 싣고 서울 헌병사령부에 와서 석방되었다 한다. 그간 행방불명이던 처녀 2명은 악착한 고문을 당한 후 신체가 약하다는 구실로 여관방에서 구속당하여 오던 중 21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극악한 만행은 여수·순천사건 이후 좌우 갈등이 고조되면서 광범하게 자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을 일으킨 자들은 24일 오후 2시경 수원경찰서에 이송되었는데, 이들은 국방부 정보국 부평파견대 정보원 김성렬(金聖烈; 33세)·강순희(姜淳禧; 29세)·이연종(李淵鍾)·박시현(朴始鉉) 등이었다.

1948년 12월 대통령령 제37호로 국방부 직제가 발표되었을 때 육군본부 안에 정보국이 개설되었다. 정보국은 군사정보, 역정보 및 밀정과 간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특히 육군본부 정보국 제3과(방첩대)의 활약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악명을 떨쳤다. 보병 제1연대 정보관 김창룡(金昌龍) 대위는 1948년 11월부터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더니 이듬해 1949년 2월 소령으로 진급하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따라서 국방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정보원들의 활동만을 탓할 일은 아니다. 정당한 고유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일제 고등경찰이 하던 방식대로 고문과 협박 등을 일삼았다. 심지어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해 사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린치가 일상적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졌던 상황이 문제였다. 좌우익 갈등은 이렇게 치달아갔고 끝내 내전(內戰)으로 파국을 맞았다.

이미 38선 인근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1949년 5월 21일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폭탄을 품에 안고 적 진지에 돌입하여 죽어갔던 '육탄 10용사' 가운데 한 명이 안녕리 출신 육군 일등병 윤승원(尹承遠; 21세)이었다. 10용사 가운데 동탄면 반송리 김종해(金鍾海; 20세), 반월면 속달리 이희복(李熙福; 22세) 등도 포함되어 있다. 유난히 수원출신들이 많았던 셈이다. 이렇듯 그들은 죽어갔다. 안녕리에 윤승원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2) 안녕리의 6·25

1) 전쟁소식

1950년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안녕리에 전해진 것은 6월 25일 당일 오후 안녕리

우체국 비상전화를 통해서였다. 우체국장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긴급히 알려주었지만 동네사람들은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소위 '한국전쟁' 으로 일컬어지는 6 · 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영어권의 학계의 6 · 25전쟁에 대한 호칭은 'the Korean War' 이다. 그러나 한국사에 대해 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Korean War라는 용어는 그리 적절한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전의 6 · 25사변 혹은 6 · 25동란으로 일컬었던 것에 비하면 객관적 호칭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을 사용했던 측면이 있었다. '사변(事變)' 은 일이 터졌다, '동란(動亂)' 은 난을 일으켰다는 의미 정도이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만주를 침략하고 나서 그 행위를 호도하기 위해 '만주사변' 으로 지칭하는 것이거나 '동학난' 처럼 왕권과 지배층에 대하여 반항하여 난리를 일으켰다는 정도의 주관적 표현이다.

남한 학계에서는 이 영어식 명칭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국전쟁' 으로 부르지만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한두 건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한국전쟁' 이라 불러야하는 이유는 없다. 역시 베트남에서 일어났던 여러 전쟁 가운데 유독 미국이 참전한 전쟁을 '베트남전쟁(the Vietnamese War)' 이라 불러야 하는 것도 잘못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본전쟁 · 중국전쟁 · 미국전쟁 등의 호칭이 성립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외국인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한국을 그들 주변의 부차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6 · 25전쟁은 내전(內戰)인가 국제전(國際戰)인가, 사변(事變) 혹은 동란(動亂)인가, 아니면 혁명전쟁(革命戰爭)인가 등 전쟁의 성격에 대한 구명은 또 다른 문제로 여전히 논란 중이다. 또한 37개월 동안 20개 나라가 개입했던 전쟁으로서 참가자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격도 복잡했다. 이러한 복잡성이 오늘날 호칭문제에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이미 1949년부터 38선을 둘러싸고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6 · 25전쟁' 이라는 용어 역시 적절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외 학계가 모두 동의할 만한 명칭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이러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을 뿐이다.

6 · 25전쟁이 발발하고 3~4일 지나서 서울로부터 피난민들이 지나가고 전선에서 후퇴하는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안녕리 앞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전쟁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6월 29일 인민군 야크 전투기 편대가 수원비행장을 폭격하던 날, 저공비행으로 안녕리 상공을 지나가며 내는 굉음에 주민들은 모두 놀라 밖으로 뛰어나왔다. 전쟁이 피부로 실감되는 순간이었다. 인민군은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7월 3일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7월 4일 수원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다시 남하를

계속하여 수원 남쪽 10㎞ 지점 안녕리의 옆 마을인 죽미령 고개에서 처음으로 미군 스미스대대와 조우하여 첫 전투를 벌였다. 따라서 안녕리의 인민군 점령은 7월 5일경 죽미령 전투와 같은 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인민군의 수원입성과 죽미령 전투

13만5천 명의 병력과 T-35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인민군은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하였다. 3일을 서울에서 지체하다가 다시 공격을 개시하여 7월 3일 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7월 4일 밤늦게 인민군 1군단 3사단과 4사단이 수원에 진입하였다. 7월 4일 하루 동안 국군은 인민군에 밀려 영등포에서 수원에 이르는 40㎞ 거리를 후퇴하였다. 이날 수원에 진입한 인민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음날인 7월 5일 평택 · 안성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이들은 수원 남쪽 죽미령 고개에서 진지를 구축한 미군 선발대 스미스대대와 교전하였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최초의 미군부대인 스미스대대는 인민군에 완패하였다. 다만 인민군의 진격을 7시간 저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스미스대대가 일본을 출발한 것은 7월 1일 아침이었다. 400여 명 규모의 스미스대대는 일본 이타쓰케 비행장에서 24사단장 딘 소장으로부터 가능한 북쪽에서 인민군의 진격을 멈추게 하라는 작전명령을 하달받았다. 그러나 작전명령치고는 매우 어설픈 내용이었다. 한국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펼칠 구체적인 지역도 지정되지 않은 채 막연히 가능한 한 북쪽에서 인민군을 저지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이같은 작전명령을 내리는 딘 소장 역시 스미스 중령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안해하였다. 출발 당일 부산항에 도착한 스미스대대는 저녁 기차편으로 부산을 출발하여 7월 2일 아침 대전에 도착하였다. 그러고 며칠간 준비를 거친 후 7월 5일 동이 트기 전인 새벽 3시 스미스대대는 수원 남방 죽미고개에서 진지구축에 나섰다. 동이 트자 수원 남단에서 인민군 전차부대가 남하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스미스대대는 33대의 전차로 구성된 인민군 전차대가 사정거리에 들자 공격을 가하였다. 이 교전에서 2대의 인민군 전차에 손상을 입혔으나 인민군 전차는 스미스대대를 무시하고 앞을 지나 그대로 오산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스미스대대와 인민군의 본격적인 교전은 그 뒤에 전개되었다. 인민군 4사단 주력부대와의 전투가 그것이었다. 사단병력과 대대병력 간의 교전이었기에 결과는 교전 초부터 예측되었다. 3시간의 교전 끝에 스미스대대는 150여 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병력은 후퇴하였다. 후퇴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져 일부병력은 평택으로, 또 다른 병력은 오산으로 후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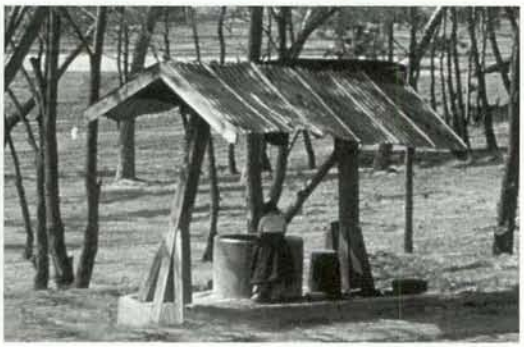
3) 인공 치하의 안녕리

죽미령 전투가 있었던 7월 5일 경을 전후해서 인민군이 안녕리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처음 진입한 부대는 예상외로 기마전투부대로 아무 저항없이 조용히 들어와 타고 온 군마를 각 농가 외양간에 매어놓고 군인들은 농가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군인들의 복장과 외모는 경마장 기수들처럼 왜소한 체구에 낡은 군복과 가벼운 전투화와 모자를 쓰고 따발총을 메고 있었으며 모두 심한 이북 사투리를 쓰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대가 많고 들밭 길을 종횡무진으로 달릴 수 있는 편리한 부대 같았다. 안녕리에 2~3일간 조용히 머물다 어느 날 아침 흔적도 없이 모두 떠나 버렸다. 그 후에 들어온 부대는 모두 용주사 근처 잔솔밭 야산에 진지를 만들고 숙영했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군인들의 모습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안녕리의 상황은 크게 변화되었다. 보수 우익들은 도피했거나 숨어 지내야 했고 반면 좌익들과 일부 농민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실제로 안녕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된 사람은 바로 엊그제까지 박용근 선생네 머슴을 지냈던 사람이었다.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 구성을 필두로 여맹, 민청 등이 조직되었다. 낯선 좌익 청년들이 팔에 완장을 두르고 안녕리를 활보하는 광경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극소수의 인민군들만이 안녕리 마을에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대개 내무서 근무요원들이었다. 내무서 사무실은 안녕리 뒷동산 밤나무 숲속 구 이왕직 사무실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곳은 공원처럼 넓은 마당이 있었고, 건물 옆에는 2개의 동굴형 반공호가 있었는데, 우익인사들을 가두는 유치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왕직 사무실 뒤
왼쪽 50m 위치에 이왕직 사무실이 있었고, 오른쪽 건물은 사무실 창고이며, 멀리 보이는 것은 사성이 방죽이다.



이왕직사무실 모범우물

안녕리는 물론 안룡면 여러 지역에서 우익 검거 선풍이 몰아쳤다. 그들은 모두 안녕리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우익인사들이 줄줄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소위 '악질반동' 들은 즉결처분(총살형)되었다. 해방 후 좌익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고문

했던 경찰들을 제일 미워했던 것 같다. 그 외 미제간첩, 악질친일파, 이북 출신 우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등이 악질반동에 속했던 것 같다.

송산리의 나대근(羅大根; 당시 45세)은 해방 직후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따른 죄명으로 7월 12일 인민군에 의해 피살되었다. 나대근은 일제강점기 송산리에서 송산강습소를 설립해 무산아동에 대한 교육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또한 용주사 승려로 역시 우익단체의 책임자였던 김복기는 죽미령에서 피살당하였다. 동굴유치장 안에는 안녕리 사람들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일제 때 마을 구장을 지냈던 사람, 용주사의 법무 윤호순(尹豪淳; 후에 용주사 주지 역임), 이북 출신의 안녕리 의사 이세겸(李世謙), 미국 간첩 용의자 등등으로 유치장은 만원이었다. 한 미국간첩 용의자는 새우젓 행상인데 제트전투기 편대가 요란치던 날 처마 밑에 숨지 않고 대로를 유유히 걸어갔다가 내무서 요원에게 발각된 것이다. 내무서원은 미군기를 유도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었고, 이 장사꾼은 새우젓독이 무거워 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 동굴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호명되어 불려나가면 밤나무 숲 외진 곳으로 데려가 총살형을 집행했다. 개전 초기에는 하루에도 여러 명이 처형되었던 것 같다. 이북 출신으로 안녕리에서 용화의원을 개원하고 있었던 이세겸 선생도 총살 호명 직전에 의사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마침 양산리 마을에서 치안대원들의 총기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공화국을 배반해 월남했고 또 마을의 최재준과 친한 반동으로 점 찍혀 계속 유치장에 구속되었지만 폭격으로 인한 부상자 때문에 결국 석방될 수 있었다. 의사는 좌우 어느 쪽에서도 필요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한편 내무서 앞 넓은 마당에는 항상 많은 인파로 소란스러웠다. 우익인사들이나 그 아낙네들을 끌고 와 뭇매를 가하고 그 광경을 구경하는 인파들이었다. 한 핵심우익의 부인은 미처 피신가지 못하고 혼자 집을 지키고 있다가 끌려왔다. 한때 핍박을 당했던 좌익의 부인들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몽둥이로 때리고 짓밟아 결국 죽게 되었다. 좌익의 부인들은 해방정국에서 자기 남편들이 당했던 그 이상으로 죄없는 우익의 부인을 보복행위로 린치로 가했던 것이다.

또 동굴 유치장 앞에서는 잡혀오는 사람,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의 울부짖음으로 아비규환이었다. 지방의 좌익들의 이러한 분풀이 보복행위는 이후 북한 고위당국자 지시에 따라 차츰 줄어들었다고 한다.

인민군의 소총소리는 좀 특이하게 '딱쿵' 하고 울려 퍼져 사람들은 딱쿵총이라 불렀다. 안녕리 주민들은 뒷동산에서 들려오는 딱쿵하는 총소리를 듣고 하루에 몇 명이 희생되었는지 또 집단 사살이 있었는지 집에 앉아서 셀 수 있었다. 얼마를 지나고부터는 지방민의 인심을 고려하여 밤에만 총살형을 집행했다.

늦은 밤 뒷동산에서 '딱쿵' 하고 울려 퍼지는 그 총소리는 두견새의 울음처럼 구슬프게 들려왔고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밤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시신은 병마골에 버려졌다고 한다.

인민군들은 개전 초기 안녕리 · 송산리 일대를 장악하고 용주사와 융건릉 깊은 숲속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들은 용주사 대웅전을 군 사령부로 사용한 듯하다. 융건릉 깊은 숲속에는 곳곳마다 지하 방공호를 구축하고 요새화하였다. 차츰 전세가 불리해지고 의용군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은 용주사에 집결하여 전투훈련을 받는 듯했다. 용주사 앞 잔솔밭 야산에는 연습용 나무 모의총과 모의 수류탄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수원비행장

8월 들어서는 미군 전투기의 폭격이 점차 심해졌다. 1번 국도와 경부철도가 통과하는 병점역 주변이 목표인 듯 거의 매일 나타나 상공을 선회했다. 개전 초기에 인민군 야크전투기가 수원비행장을 몇 차례 폭격했고 미군전투기와 공중전 장면이 목격되었으나 그 후 야크기는 보이지 않았다. 7월 초쯤 인민군의 탄약수송열차가 폭격을 받아 폭파되었는데 병점은 3일간 밤낮으로 불바다로 변한 적도 있었다.

1번 국도와 기차가 지나는 병점 주변 교량과 죽미령 그리고 수원비행장 활주로가 늘 폭격 목표였고, 밤이 되면 주민들이 총동원되어 원상회복시켜 놓았다. 복구공사는 생명을 내건 전투와 같이 새벽까지 복구되어야 했고 완전하여야 했다. 복구공사는 늘 반복되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힘든 줄 모르고 자진해서 복구공사에 복무했으나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열의가 식고 지쳐서 주민들의 참여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밤중에 안녕리에서 병점역이나 수원비행장까지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가서 흙을 나르고 부서진 잔해를 치우는 일 등을 반복했다. 나중에는 민간인들의 협조가 잘 안 되자 군인들이 권총을 빼들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소와 달구지 등을 동원하고 장정을 모았다.

4) 김웅진의 최후

안녕리 좌익운동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김웅진은 국회의원이 된 후 내내 서울에서 지냈다. 6 · 25전쟁의 발발소식도 서울 북청동 집에서 들었다. 다른 동료의원들과 같이 사태 추이를 관망하다가 마지막으로 부산행 열차를 탔다. 비서실장 박용근도 동행하였

다. 기차 안에서 마음이 착잡했을 것이다. 그대로 부산까지 가는 것이 더 마음 편하고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는 부산으로 가는 대신 부모님이 계시고 예전처럼 그를 환호하는 추종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고향 안녕리로 가기 위해 병점역에서 내렸다. 이후 안녕리에서 계속 머물렀다. 인공치하 안녕리에서 그는 특별한 활동이 없이 조용히 지냈던 것 같다. 그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화성군 각 지역의 좌익들은 모두 자기 길을 갔다. 그는 9 · 28서울 수복 이전에 사태를 관망하기 위하여 상경하였다. 서울 묵정동 집에서 머물다가 전쟁추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평소 친분이 있었던 김영묵 대법원장 집에 찾아갔다가 내무서원들에게 붙잡혀 이북에 끌려갔다고 한다. 박용근 씨의 이러한 증언은 지금까지 통설로 알려져 있던 김웅진의 자진 월북설을 뒤집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안녕리에서는 김웅진을 공산주의자 또는 빨갱이 두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극소수는 그가 좌익이 아니었고 좌익조직 운동원들에게 이용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시대 상황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그가 실현하려고 했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더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남로당 조직활동을 안녕리 백봉흠 등과 함께 펼쳤던 김시중 등의 증언을 통해 보면 그는 조선공산당 혹은 남로당 당원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증언과 기록을 통해 김웅진은 진보주의자, 개혁가, 격랑 속의 풍운아 등으로 조그마한 마을의 역사 속에 남아 있다.

5) 안녕리의 수복

1950년 9월 15일 역사적인 맥아더(D. MacArthur)의 인천상륙작전에 따라 전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유엔군의 해병대는 서울을 향해 진격하고 미 보병 7사단은 수원을 향하여 남진하였다. 이는 수원비행장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미7사단 32연대는 9월 21일 안양 동북쪽 300고지와 시흥 동쪽 111고지를 장악한 데 이어 오후 2시 안양시내에 진입하였다. 수원비행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미7사단은 9월 21일 오후 4시 사단 수색중대와 1개 전차 소대로 구성된 장갑정찰대를 구성하여 수원으로 출발하였다. 이 장갑정찰대가 수원에 들어선 것은 2시간 뒤인 오후 6시였다. 물론 장갑정찰대가 수원에 들어오기 전에 미군 폭격기가 수원시내를 폭격한 뒤였다. 9월 22일 새벽 수원 남쪽에 주둔하던 선발 장갑정찰대는 한동안 헤매다가 수원비행장을 찾아 장악하였다. 이어 '하넘특공대' 도 폐허가 된 수원 시내를 통과하여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다. 또한 정오에 미7사단 31연대가 수원에 진입함으로써 수원은 유엔군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한편 7사단 31연대는 수원을 장악한 이후 수원 남쪽 8km 지점 14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이는 인민군 105전차 사단 14연대 병력이 조치원을 떠나 북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 142고지는 수원비행장 남쪽 끝 황계리 뒷산이

다. 이 고지 바로 아래로 1번 국도가 남쪽 병점을 향해 곧게 뻗어 있고 시계가 넓게 트여 천연적인 방어요새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미군은 이미 142고지 서쪽 성황산을 비롯한 안녕리 서북쪽 고지를 모두 점령했다. 성황산은 용주사의 북쪽의 주산으로 정상에서는 수원비행장과 안룡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 안녕리에서도 산 정상에 서 있는 미군들의 모습이 목격되었다. 미31 수색대는 23일 낮에는 짚차를 나눠 타고 주변 마을을 순찰하고 돌아갔다. 미군들이 나타나자 마을주민들은 기뻐하며 며칠 남지 않은 추석(26일)이 명절로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였다. 안녕리 주민들도 미군 환영대회를 준비하고 치안조직을 위해 마을 청년들을 모아 '대한청년단'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그 책임자인 단장을 맡으려는 적임자가 없었다. 이에 의사 이세겸 선생이 임시 단장 직책을 맡았다. 이날 앞 방죽 위 백씨네 집에 사무실을 급조하고 〈대한청년단〉이라는 간판도 달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음날 24일 미군이 안녕리에 진주한다는 소문이 있어 사무실 앞마당에는 그날 아침부터 모여든 구경꾼들로 가득했다. 이날 오후 무장한 미군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마을에 나타났다. 미군들은 마을의 군중들을 일단 적으로 간주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한국인 통역이 단장에게 다가와 "미군들이 「안녕리는 빨갱이 마을이다」라는 정보를 갖고 왔으며 이 군중 가운데 젊은이들은 모두 체포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기 치안대는 미군 작전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단장만 바라보았다. 타 지역 마을사람들이 안녕리 사건들을 과장하여 전해주었는지 몰랐다. 잘못 행동했다가는 미군들로부터 주민들이 대량으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이 살벌한 전투지역이었기 때문이다. 단장은 미군들에게 "나는 이 마을 의사이다. 한때 안녕리는 빨갱이들의 세상이었고, 우익 민주인사들이 많이 희생된 곳이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피해자이거나 희생자 가족들이다. 이 마을의 공산주의자들은 어젯밤 다 도망갔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미군들이 들어와 평화가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다. 이 마을의 공산당 문제는 우리 치안대에 맡기고 안심하고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행히 미군들은 순순히 물러갔고, 환영하러 나왔던 마을사람들도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군중 속에는 좌익분자들도 더러 섞여 있었던 것을 단장을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다. 미군들이 다녀간 그날 밤(24일) 극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달빛이 대낮같이 밝은 밤에 완전히 퇴각한 줄 알았던 인민군들이 안녕

미군의 대공포

리에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청년단 사무실이 순식간에 포위되었고 단장과 대원 몇 명이 체포되었다. 단장 가슴에 권총 총구로 밀어대며 인민군들이 소리쳤다. "공화국을 배반한 이 악질반동을 당장 처형시켜!" 인민군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미군과 대치상황에서 총을 함부로 쏠 수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았다. 시간에 쫓기는 듯 군인들은 인질들을 끌고 황급히 사라졌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강신환 선생(당시 중2)은 인질들을 인민위원회 사무실로 끌고 가 처형시키는 줄 알았다고 회고했다.

인민군들은 용주사 근처까지 끌고 가다가 인질들을 돌연 석방시켜 주었다. 기적같은 생환이었다. 이 인민군들이 숲속으로 사라진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이 일대에서 미군과 인민군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었다. 24일 밤의 이 전투는 인민군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인민군들이 인질을 아무 말 없이 석방시켜 준 이유에 대하여 끌고 온 인질을 처치할 시간적 심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인민군과 내통했던 안녕리 인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석방시켰다는 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민군의 인도주의적인 판단을 꼽을 수 있다. 24일 야간전투는 안녕리 앞 송산교와 병점 사이 지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었다. 안녕리 앞 넓은 들판은 온통 불바다를 이루었다. 수원비행장과 황계리 진지에서 쏘아대는 탱크포와 기관총 탄환은 안녕리 들판에 우박처럼 쏟아졌다. 인민군은 양산리 쪽에 진지를 구축하여 응전하였는데 인민군의 응사도 만만치 않았다. 잠시 총소리가 멈춰 고요할 때면 인민군들의 특유의 함성소리가 동네에 크게 울려 퍼져 그들의 존재를 과시했다. 이 전투는 새벽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후 전투는 경부철도와 국도변에서 28일까지 4일간 더 계속되었다. 패색이 짙어진 인민군들은 불타고 파손된 탱크 몇 대를 1번 국도에 버려둔 채 동쪽 용인 방면으로 퇴각함으로써 전투는 끝이 났다. 인민군이 용인으로 퇴각한 것은 용인쪽에서 산을 타면 백두대간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투가 종결된 28일경 미군탱크 1개소대 안녕리와 양산리 일대를 확인 정찰함으로써 이 일대는 완전 수복되었다. 9월 28일은 서울이 수복된 날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안녕리 일대는 인민군 이 점령한 지 2개월 20여일 만에 미군의 도움 아래 대한민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안녕리의 핵심 우익들이 고생 끝에 하나 둘씩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어 우익의 좌익에 대한 응징과 보복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 좌익들은 월북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잠적해 버린 상황이었다. 김응진 의원은 납북되었지만 남아 있던 다른 친족들이 수난을 당했다. 김응진 부인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고, 돌고지의 김만길도 우익 별동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이제 우익의 세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우익들은 인공치하에 당한 인적 · 물적 피해와 심리적 고통을 액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의 물질적 보상을 좌익들에게 요구하기로 하였다. 좌익 가담 정도에 따라 가구별로 액수를 할당하였다. 벼와 보리 등 농작물과 소 · 돼지 등 가축 그리고 심지어 농토까지 현물로 배상을 요구했는데 대다수 농민들이 부담스러워했다. 핵심 가해자들에게는 당연한 댓가일 수 있지만 단순 가담자나 시대적 분위기에 추동된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 없었다.

6 · 25전쟁은 안녕리에 많은 인명피해와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태풍처럼 휘몰아쳐 갔다. 해방정국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자주적이며 통일적인 민주정부 수립이 지상의 목표였다. 그러나 그 방법과 내용에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로 하여 좌우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거기에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사회주의적 성향의 자생적 조직들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탄압한 미군정당국의 존재는 구조적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이 주민들 간의 좌우대립으로 나타났고, 당시 남한 전체는 좌우익 이념 갈등으로 비춰졌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에 더하여 안녕리 지역의 좌우익 갈등의 특징과 시작은 좀 더 다른 곳으로 전개되었다. 마을의 두 명가인 최씨와 김씨 즉, 최재준과 김웅진 집안의 감정대립에서 비롯되어 점차 이념적 성격으로 발전하여 전체 마을이 좌우익으로 나뉘고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에는 중도파가 존재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도파는 회색분자 또는 기회주의자라 하여 좌우 양측으로부터 미움을 샀고 데려다 두들겨 맞던 시대였다. 따라서 당시의 좌익과 우익의 정확한 명단은 극소수의 증언자들조차 여전히 말하기를 꺼려한다. 따라서 희생자(사망자)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익의 사망자 수는 「6 · 25사변 피살자 명부」로 『월간 조선』 별책부록으로 발간되었다. 하지만 좌익들의 이름과 재산피해에 대하여 증언자들이 말하기를 꺼려한다. 여전히 좌익은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새마을금고 일대

왼쪽으로 천경호 가옥, 이은만 가옥, 소등위로 보이는 전봇대 뒤 양옥이 용화의원. 그 우측 전봇대 뒤에는 안녕우체국이 보인다. 능수버들이 있는 백승소 가옥은 폭격으로 불타 다시 짓고 있는 모습이다. 도랑 오른쪽으로 현재 새마을 금고가 들어서 있다.

당시 인근 양산리와 세교리와 문학리 그리고 금암리 등도 좌우 갈등을 빚었던 대표적인 마을들이다. 세교리에서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39명이 몰살되었고, 금암리는 테러사건으로 동네 부녀자들에 의해 우익 1명이 살해되기도 하였지만 전쟁 때 우익들에 의해 마을 12채가 소실되었고 26명이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되었다고 한다.

6 · 25전쟁 동안 미군이 작성하여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뿌린 삐라는 한결같이 중국과 북한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표현했다. 또한 남한군을 향해 뿌린 북한의 삐라 역시 이승만을 '미국의 주구'로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이 '꼭두각시' 논리야야말로 6 · 25전쟁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한반도에서 냉전의 '적'이 어떻게 주조(鑄造)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의 정권적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이 전쟁을 불러왔던 셈이다.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서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방을 괴뢰로 불렀다. 또 미군이 북한과 중국을 소련의 꼭두각시로 공격하는 데에는 적에 대한 이념적 공격이라는 측면 외에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6 · 25전쟁은 그들에 의해 만들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놓고 지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휴전상태에 있을 뿐이다. 이제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는 즈음이다.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상황인 셈이다. 무엇이 달라졌던 것인가. 그것을 원했던 해방 공간의 숱한 사람들과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은.

안녕리가 수복되자 핵심좌익들은 월북했거나 처벌되어 그 가족들도 모두 안녕리를 떠났다. 최재준을 비롯한 핵심우익들 역시 모두 고향을 등졌다. 전쟁이 끝난 뒤 안녕리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가 찾아왔고 전후 복구사업에 모두 발 벗고 나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안녕리 근현대사 중 해방공간과 전쟁 등 약 7~8년간은 역사상 가장 안녕하지 못한 불행한 시기였다.

새로 짓고 있는 집

지붕 위에서 일하는 사람

3. 마을 기관의 어제와 오늘 :

미래의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이 동 근(경희대학교 강사)

(1) 들어가며

인간의 삶은 항상 변화한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변화하듯 마을도 변화하고 발전한다.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잘 알려주는 것은 마을기관이 들어서고 없어지는 모습이다. 오늘날 마을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주거문화의 변화이다. 새롭게 도시발전이 가져오는 아파트의 건설과 인구의 증대는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 제일 먼저 학교가 세워진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들이 계획되고 들어선다. 즉 인간 삶의 변화와 주거의 변화 속에 기관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큰 변화를 마주하며 공간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농복합이라는 개념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별개의 지역으로 보아 온 관행에서 벗어나 산업부문의 도시지역과 농업부문의 농촌지역의 역할과 기능의 상호보완적 연계개발을 통하여 국토차원의 지역개발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지역개발전략이다.[1]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통해 농촌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농촌적인 요소가 강했던 화성시는 시가지 개발과 공장면적의 증가, 도시적 인구비중이 점차 증가하며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화성시는 농촌적인 경관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상당부분은 농업 · 어업 등 전통적 성격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새로이 등장하는 도시적 환경과 전통적인 농촌적 환경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발전방향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2]

화성시의 도시 및 지방계획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교통과 토지이용의 결합을 유도하면서 각종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

1) 임창호, 「도농복합논의의 전개과정과 향후과제」, 『토지연구』 6-6, 한국토지개발공사, 1995, 9쪽.

2) 신기동, 「화성지역연구를 시작하며」, 『화성지역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005, 3쪽.

에서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마을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화성시의 화산동이 바로 그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다.

화성시의 법정동 송산동 · 안녕동 · 황계동을 포함하는 것이 행정동 화산동이다. 병점역의 설치와 태안읍의 도시 개발, 동탄 신도시 개발은 화산동의 개발과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화산동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학교와 마을기관들이 세워지고 있다. 화산동은 비교적 수원시와 인접한 교통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전통마을의 입지조건을 유지했다. 그것은 안녕동 중심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촌마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상권도 안녕동 중심지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 모습을 띠고 있던 화산동은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화산동은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있고, 이미 일부가 개발된 상태로 커다란 변화에 다가서 있다. 이런 마을의 변화는 일순간의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조금씩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바꾸어가고 있다.

신도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사업들이 대거 진행되고 화성시의 도시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아직 농촌적 요소를 강하게 지니고 있는 화산동의 균형잡힌 개발이 요구된다. 그러한 도시형 경제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변화하는 화산동의 모습을 마을기관을 통해서 바라보고자 한다. 화산동의 마을 기관은 크게 교육기관과 행정기관, 금융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의 변화와 함께 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행정기관의 주민 복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주민들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같이한 금융기관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을 기관의 어제와 오늘의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미래 축구 꿈나무들과 함께하는 교육의 현장

1) 역사와 함께한 안룡초등학교의 개교와 이전

우리는 식민지 역사라는 그늘을 지니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던 아픈 기억이 존재한다. 일제강점기 근대화라는 미명아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가 식민지배 구조를 고착화시키려 했던 산물이었다. 그 이면에는 엄연한 민족적 차별과 종속, 그리고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있었다. 식민지 체제 아래 많은

기관의 설립은 그러한 구조아래 만들어졌다.

한일병합 후 1910년대까지는 민족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서당교육이 활발하였다. 다음의 〈표 1〉을 통해 1920년대 초의 수원군의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그러한 모습이 더욱 분명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20년대 초 수원군의 학교현황

구 분	공 립	사 립	학급 수	교 원	학 생(명)	
					남	여
소 학 교	4	–	14	18	320	185
보 통 학 교	6	–	34	37	1,642	308
간이실업학교	1	–	1	2	22	–
종 교 학 교	–	3	13	13	107	164
서 당	–	238	–	239	2,353	2
계	10	241	62	309	4,444	659

자료 : 酒井政之助, 『水原』, 1923, 16쪽을 참고로 작성함.

1920년대 들어서면서 민족해방운동의 거센 물결이었던 3 · 1운동의 영향으로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이 변화를 가져왔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체제는 문화정치라는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다.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저항 운동의 힘은 일제의 통치방식을 표면적이나마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화정치로의 개편 내용 중에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식민지 교육체제의 개편이었다. 총독부는 이른바 '삼면일교제(三面一校制)' 정책을 추진하였다. 삼면일교제 정책은 1918년 말에 수립되었고, 내용은 1919년부터 1926년까지 8개년 동안 약 3개면에 하나 꼴로 보통학교를 증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3 · 1운동 직후인 1920년 수정되었다. 보통학교에 대한 조선인의 취학 요구가 급격히 고조됨에 따라 1921년부터 실시 기간을 단축하여 1922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애초에 4년제 보통학교 증설 방침이던 것을 6년제 보통학교(상황에 따라서는 5년 또는 4년제) 증설 방침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1922년 2월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다. 교육령 개정에 표방된 취지는 이른바 '내지연장주의(內地延長主義)' 였다. 일본 교육과 동일한 학제를 조선에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기존의 보통학교 교육 연한을 4년제에서 6년제로 연장하고, 중등학교 교육 연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사범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통학교규정」을 개정하여 보통학교의 교육과정을 재편하였다. 1920년대 보통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보면 6년제가 되면서 역사 · 지리 등 인문적 교과가 도입되었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또한 1910년대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가장 뚜렷한 변화는 보

통학교 교육과정에서 직업 교과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1920년대 초등교육이 팽창되었다.[3]

이러한 상황 속에 수원군 안룡면에서도 보통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표 1〉에서 보면 이미 수원군에는 보통학교가 6개나 설립되어 있었다. 1896년에 개교한 수원공립보통학교를 비롯하여 남양공립보통학교(1898) · 오산공립보통학교(1913) 등이 지역 유지들의 열성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923년 추진된 안룡면의 보통학교 설립은 당시 안룡면장 김남소(金南韶)와 유지 박희양(朴熙陽) 등의 발기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별도로 기성회를 조직하여 기부금 모집과 설계안 작성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기부금이 9천여 원에 달했으며 이 중 현금이 2천여 원이나 되었다. 박희양의 경우는 개인이 5백 원이라는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다.[4] 이렇게 하여 관과 지역 유지의 합동으로 안룡공립보통학교가 1924년 4월 23일 설립인가 되었고 1924년 9월 11일 2학급으로 개교하였다.

당시 안룡면의 보통학교 설립은 안룡면 대황교리 · 곡반정동 · 안녕리 · 송산리 · 고색리일원, 정남면 괘랑리 · 보통리, 그리고 태장면 병점리 · 진안리 · 기산리, 성호면 양산리, 봉담면 와우리 · 동화리 등에 걸친 지역의 학구단위를 포함했다. 이후 정남공립보통학교가 1930년에 설립되면서 학구단위가 변화되었다.[5]

안룡공립보통학교는 식민지하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영의 주체는 식민지배 권력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인가와 그 관할하에 운영되었던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교장이 취임하여 학교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민족적 차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안룡공립보통학교에는 개교 후 3년 뒤 일본인 교장과 조선인 교원 권영호(權寧鎬, 35) 외 한 사람 등 교원이 모두 세 명이었다. 그런데 일본인 교장의 민족적 차별과 돌출 행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으며 조선인 교사와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일본인 교장은 개성의 한 보통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안룡공립보통학교로 부임한 자였다. 그는 전근되어 온 지 며칠도 되지 않아서 조선인 교원을 함부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권영호에게는 특히 인권을 유린하는 언어와 행동이 많았다. 그러다가 권영호가 1학년 담임으로 수업을 하는 중 교장이 들어와 학교의 위생시설이 형편없음을 질책하면서 교실 내의 거미줄과 바닥청소 등을 강요하며 권영호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권영호에게 배일사상의 혐의가 있다고 사직을 권고하였다. 이에 분함을 이기지 못한 권영호는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다 중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인 교장은 오히려 권영호가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많아서 자살하려 하였다고 모함까지 하였다. 결국 학교의 평의원과 학무위원들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군수와 도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일본인 교장을 다른 곳으로 전근시켜 줄

3) 오성철,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교육과학사, 2000, 24~27쪽.

4) 『조선일보』 1923년 12월 2일.

5) 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63~364쪽.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권교사의 경우도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태의 책임상 함께 전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6] 이것은 단순한 학교의 개인 문제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달리 보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구조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조선인의 일본인으로의 동화과정이었고 그것의 방법적 수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식민지 교육의 민족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안룡공립보통학교는 창립 10주년이 되던 해인 1934년부터 6년제로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지역 유지들이 학년연장기성회(學年延長期成會)를 조직하여 개교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기성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김남소(金南韶)
부회장 : 이기팔(李起八)
고　문 : 송병황(宋秉幌) · 박건유(朴健裕) 외 6명
위　원 : 김성배(金聖培) 외 17명
서　기 : 황인수(黃寅秀) · 김형교(金炯敎)
회　계 : 이상원(李相元)[7]

이후 안룡공립보통학교는 1942년 5월 31일 6년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안룡공립보통학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비행장을 건설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비행장 옆의 학교에 대한 연합군 폭격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소개령이 내려졌다. 이에 1945년 3월 31일 남학생들은 태안면 송산리 용주사로 소개되고, 여학생은 그대로 수업을 받기도 했다. 그 후 해방이 되면서 1945년 9월 24일 원래 대황교리의 안룡국민학교로 복귀하였고, 초대 교장으로 김종근이 취임하여 개교하였다. 1946년 9월 1일 고색동에 오목천 분교가 설립되었고, 1950년 6월 1일 오목천 분교가 고색국민학교로 승격되어 분리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미군이 학교를 강제 점령하여 비행장으로 편입함으로써 안룡국민학교는 폐교되었다. 이에 학교는 인근 마을 황계리에서 창고를 빌려 운영하였다. 당시 교원으로는 교장과 교감 이동욱, 교사 방득현과 박도양이 있었다. 학생은 50~60명 정도였다. 이후 안룡면장을 역임한 박정양과 마을의 유지들이 학교를 복교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다시 1951년 10월 30일 안룡면 곡반정리 49번지에 4개의 목조 교실을 준공하여 안룡국민학교의 곡반정동 시대가 열렸다.[8]

6) 『조선일보』 1926년 3월 14일.

7) 『조선일보』 1934년 9월 18일.

8) 수원시, 『수원의 동족마을』, 2006, 364~366쪽.

〈표 2〉 안룡초등학교 연혁

날 짜	내 용
1924. 4. 23	4년제 안룡공립보통학교 설립 인가
1924. 9. 11	2학급으로 개교
1945. 9. 24	초대 김종근 교장 취임
1946. 9. 1	고색동에 오목천 분교장 설립 개교
1950. 6. 1	오목천 분교장을 고색국민학교로 승격 인가
1951.10. 30	안룡면 곡반정리 49번지에 준공, 학교 이전
1962. 1. 1	수원시 편입, 안룡국민학교로 개칭
1985. 3. 1	병설유치원 인가
1996. 3. 1	안룡초등학교로 개칭
2003. 3. 1	곡반정동 86-1로 학교 이전
2006. 2. 17	제80회 졸업식(졸업생 누계 : 5,628명)
2006. 3. 1	제27대 이석기 교장 취임
2006. 3. 1	19학급 편성(특수학급 1학급 포함)

이후 1962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룡국민학교는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1985년 3월 1일 부설로 병설유치원이 인가되었고, 1996년 3월 1일 안룡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 안룡초등학교는 곡반정동이 새로운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2003년 곡반정동 86-1번지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현재 안룡초등학교는 80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9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으로 편성되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안룡초등학교는 지금은 수원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옛 안룡면과 태장면 지역의 마을주민들의 삶과 함께 긴 시간을 숨쉬며 미래의 꿈을 키워갔던 곳이다.

〈표 3〉 안룡초등학교 학생현황(2006년)

학 년	1	2	3	4	5	6	특 수	계	유치원	총 계
학급 수	3	3	3	3	3	3	1	19	1	20
학생 수	104	117	114	106	119	120	6	679	29	708

2) 화산의 정기를 품은 화산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희롱한다는 화산(花山)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화산은 꽃뫼의 한자식 표현이다. 예전 수원부 읍치(邑治) 시절의 진산(鎭山)이었고,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思悼世子)의 현륭원(顯隆園)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졌다. 이듬

해 용주사(龍珠寺)가 중창되고 정조 사후에 건릉(健陵)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적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화산은 화산(華山)으로도 쓰는데, 화(華)는 화(花)와 서로 통하여 쓰는 글자이기 때문이다.[9]

화산초등학교의 뒷산은 화산자락의 용당골로 불리는 곳이다. 현재 이곳 마을주민들은 매년 산제(山祭)도 지내고 있다고 한다. 화산초등학교는 1946년 1월 25일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교였던 안용심상소학교를 접수하여 그 해 3월에 현재 송산동 위치에서 학교를 개교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유산을 차단하며 새롭게 화산동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 것이다.

화산초등학교 개교 60주년 행사

화산초등학교는 1946년 3월 31일 화산국민학교로 개교하였다. 그리고 1950년 5월 26일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후 1984년 3월 1일 특수학급이 설치되었고, 1986년 3월 1일에는 병설유치원이 개원하였다. 1998년 3월 23일에는 급식소를 준공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였다. 2005년 3월 1일에는 제21대 반현장 교장이 부임하여 현재 재직 중이다. 2006년 2월 17일 제57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화산초등학교를 졸업한 총 졸업생 수는 6,933명으로 명실상부한 화산동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 3월 1일 현재 29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4〉 화산초등학교 연혁

날 짜	내 용
1946. 3.31	화산국민학교 개교
1950. 5.26	제1회 졸업식
1984. 3. 1	특수학급 설치
1986. 3. 1	병설유치원 개원
1998. 3.23	급식소 준공 및 학교급식 실시
2005. 3. 1	제21대 반현정 교장 부임
2006. 2.17	제57회 졸업(총 졸업생 수 : 6,933명)
2006. 3. 1	29학급 편성(특수학급 1학급 포함)

9)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Ⅱ』, 2005, 732쪽.

화산초등학교의 중점사업으로는 첫째 'Step & Jump 운영의 충실'로 배운 문장의 일상생활에서의 사용과 영어 도우미 제도가 실시되고, 둘째 'YP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으로 인터넷 유해환경 대처 능력을 키우고, 순찰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로 '축구부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와, 인성이 바른 학생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로 '구강보건실 운영의 충실'을 기하여 구강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충치예방 불소용액 양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10]

〈표 5〉 화산초등학교 중점사업

구 분	내 용
Step & Jump 운영의 충실	배운 문장 일상생활에서 사용 영어 도우미 제도 실시
YP 도지정 시범학교 운영	인터넷 유해환경 대처 능력 신장 유해환경 순찰대 조직 운영
축구부 육성 및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인성이 바른 학생 선수 육성
구강보건실 운영의 충실	구강검사 연중 실시 충치예방 불소 용액 양치 연중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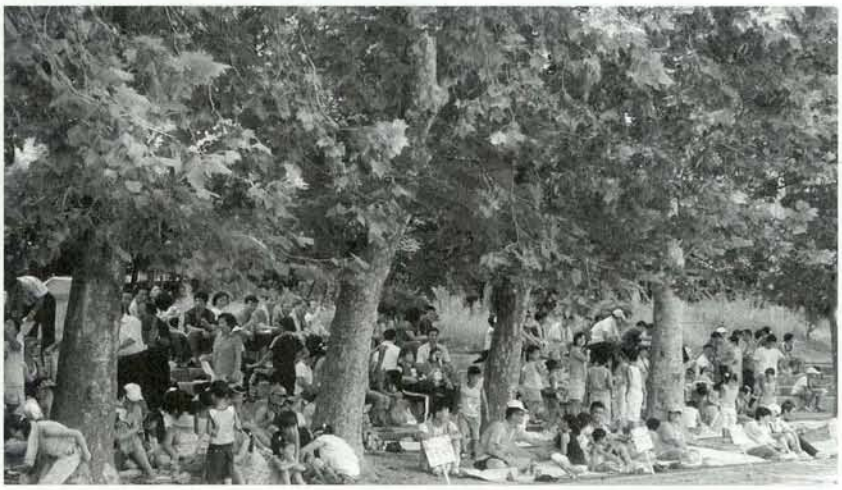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화산초등학교의 자랑이라면 축구부를 들 수 있다. 2006년 8월 15일에는 화산초등학교 개교 60주년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지역주민의 축제의 장이기도 했다. 재학생들과 총동문들이 모여 치러진 행사에는 화산초등학교 출신이며 이 지역의 자랑인 차범근 감독의 팬사인회도 벌어졌다.

차범근 감독은 1953년 5월 22일 화성군 태안면에서 출생하여 1960년 화산초등학교에 입학하고 1966년 2월 졸업하였다. 차범근 감독은 화산초등학교 때는 육상 선수로 뛰었고 영도중에서는 2학년 때까지 하키 선수로 활약했다. 1968년 경신중학교로 전학하면서 뒤늦게 축구를 시작했으나 공격수로서 타고난 자질을 발휘, 경신고 3학년 때인 1971년 청소년대표로 발탁되어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1학년 때 사상 최연소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뽑혀 그해 제5회 아시안컵대회에서 대표 데뷔전을 치르는 등 일찌감치 한국 축구의 대들보로 자리매김했다.

1972년부터 1979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고, 1978년 12월 서독 프로축구단에 입단하였다.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독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에서 1989년까지 11년간 활약하며 308경기에 나서 98골을 기록했다. 당시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300경기 출장 고지를 넘어섰다. 1986년에는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멕시코월드컵에 출전했다. 서독 축구계에 '차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서독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되었다.

10) http://hsp.es.kr 참조

현재는 차범근축구교실을 운영하며 MBC 축구해설위원을 지내고 있고,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감독을 맡고 있다.[11] 화산동을 명실상부한 축구의 고장으로 만든 중요한 인물이며 화산초등학교의 자랑이다. 이런 연유와 화산동의 축구 명문인 안용중학교의 축구부가 있어 화산초등학교는 축구 꿈나무들의 활기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화산초등학교 개교 60주년 행사에 모인 동문과 가족들

3)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 안용중학교

안용중학교는 화산동의 유일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안용중학교는 1950년대 이후 낙후된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문맹자와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장의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되었다.

안용중학교의 전신은 성인학교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전쟁 이후 피폐된 농촌의 진흥을 위해서 당시 안녕리 지서의 한정혁 경위와 마을 유지 박용근이 야학을 세웠다. 그것이 안녕리 성인학교이다. 당시 화성군청의 지원을 받으면서 20세 안팎의 청년 남녀 20여 명을 가르쳤다.[12] 이후 6년여를 운영했던 성인학교는 1961년 10월 5일 안녕성인학교로 개설되었다.

개교 초기에는 학생들이 성인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교사들도 마을의 젊은 유지들로 구성되었다. 안룡성인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고 개설되었으며 약간의 운영보조금을 받았다. 초창기 교장은 이세겸, 교사로 박용근 · 방득현 · 강석희 등이 참여하였다. 교장이었던 이세겸은 안녕리에서 용화의원을 경영하였던 의사였다. 박용근은 서울보성고보를 졸업하였고, 김웅진 국회의원 당시 비서를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방득현은 당시 교사로 활동하였고, 강석희는 용주사 주지 강대련 스님의 아들로 인텔리였다.

11) http://samsungbluewings.co.kr 참조

12) 박용근 증언, 『수원 근 · 현대사 증언 자료집 Ⅰ』, 수원시, 2001, 162~165쪽.

안용성인학교 가을소풍(1958)

원내는 이인철이며, 좌측 앞에서부터 성명 미상 교사, 김정섭 교사, 김숙자 교사이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은 성인과 어린 학생들이 뒤섞여 있었고, 교사들도 20대로 구성되었다. 1958년 당시 이인철은 이세겸의 아들로 잘 생긴 용모로 당시 여학생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 김정섭은 수원농고를 졸업하였고, 김숙자는 수원여고를 졸업하고 성인학교 교사로 참여하였다.

이후 성인학교를 이어받은 차학근 교사 시절에는 학생들의 구성이 점차 어린 학생들로 재편되어 갔다. 왜냐하면 성인학교를 통해 많은 성인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점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중학교에 진학 못하는 이들이 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6년여를 운영했던 성인학교는 1961년 10월 5일 안녕성인학교로 개설되었고, 1961년 12월에 해태공업주식회사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리고 1963년 6월 10일 안용성인학교가 폐교되고 안용고등공민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이때 설립자는 차학근이었으며 현재까지 교장을 역임하고 있다. 차학근은 당시 어렵게 운영되던 안녕리의 성인학교에 자금을 출자하여 성인학교를 인수받고 지금의 안용중학교를 설립하였던 것이다.

1969년 1월 13일 학교법인 안용학원이 설립되어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2월 28일 안용중학교 3학급이 인가를 받고 초대교장으로 차학근이 취임했다. 안용중학교는 1981년 9월 교사를 신축하였고, 1984년 2월 6일에는 1학년 5학급씩을 증설하여 전 15학급의 학교가 되었다. 1984년 5월 21일에는 교사를 증축하고 강당을 신축하였다. 이후 1994년부터는 각 학년이 6학급으로 증설되어 전 18학급이 되었다. 2001년 12월 29일에는 급식시설이 준공되어 급식소 및 조리실을 갖추었다. 2005년에는 제34회 179명이 졸업하여 총 8,14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안녕리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되었다.

〈표 6〉 안용중학교 연혁

날 짜	내 용
1955. 5.16	화성군 태안면 안녕리 안용성인학교 개설(설립자 고 한정혁 경위)
1961.10. 5	안녕성인학교 개설
1963. 6.10	안용고등공민학교 인가(설립자 차학근)
1969. 1.13	학교법인 안용학원 설립인가
1969. 2.28	안용중학교 3학급 인가(초대 교장 차학근)
1981. 9.26	신축교사 증축 준공
1984. 2. 6	1학년 5학급씩 증설(전 15학급)
1984. 5.21	교사 증축 및 강당 신축 준공
1994. 2.10	각 학년 6학급씩 증설(전 18학급)
2001.12.29	급식 시설 준공(급식소 및 조리실)
2003. 4.29	제7대 이사장 차종국 취임
2005. 2.18	안용중학교 제34회 179명 졸업(총 졸업생 수 8,148명)

안용중학교는 특색사업으로 첫째,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도예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둘째, 방과 후 교육 활동으로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1교 1운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다. 축구부는 우수선수를 영입하여 과학적인 훈련과 지도를 하고 있다.[13]

〈표 7〉 안용중학교 특색사업

특 색 사 업	추 진 내 용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1. 도예 교실 운영 2. 학교 시설물 개방
컴퓨터 교육의 활성화	1. 방과후 교육 활동 운영 2. 컴퓨터 교육의 내실화 3. 컴퓨터실 연중 개방
1교 1운동의 효율적 운영(축구부)	1. 우수선수 영입 2. 과학적인 훈련지도

안용중학교의 자랑은 역시 축구부이다. 축구부를 통해 성장한 박지성 등의 걸출한 국가대표급 축구선수들이 있다.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1969년 3월 창단하였다. 처음에는 관내 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특별활동 차원에서 출발했으나 1972년 정식으로 창단하며 선수등록을 실시하여, 각종 도 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다.[14]

1985년 제13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988년 제16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1989년 전국 선수권 축구대회 3위, 1990년 제8회 경기도지사기

13) http://www.anyong.ms.kr 참조.

14)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Ⅲ』, 2005, 871쪽.

축구대회 3위, 1991년 제16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축구 우승, 제19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준우승, 1993년 제31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3위, 1994년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3위, 1995년 전국 추계 연맹 축구대회 3위, 제23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제33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1996년 제24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1997년 제25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1998년 제26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우승, 2000년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축구 우승, 전국 소년체전 축구 우승, 2001년 제39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3위, 이 외에도 경기도 및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에서 4강 및 8강에 다수 입상하였다. 명실상부한 축구 명문을 자랑하고 있다. 안용중학교의 축구부는 체육부장 아래 감독 1명과 코치를 3명이나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15]

〈표 8〉 안용중학교 축구부 연혁

연 도	내 용
1969	3월 창단
1985	제13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1988	제16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1989	전국 선수권 축구대회 3위
1990	제8회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3위
1991	제16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축구) 우승 제19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준우승
1993	제31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3위
1994	제12회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3위
1995	전국 추계 연맹 축구대회 3위 제23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우승 제33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우승
1996	제24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1997	제25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1998	제26회 경기도 교육감기 축구대회 3위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축구대회 우승
2000	경기도 학생 체육대회(축구) 우승 전국 소년체전(축구) 우승
2001	제39회 경기도 협회장기 축구대회 3위

15) http://www.anyongmsst.com 참조.

하지만 안용중학교의 축구부가 순탄한 과정만을 거친 것은 아니다. 도 단위 대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우승하긴 했지만 전국대회에서는 그다지 빼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00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29회 전국 소년체전 결승에서 경남의 중앙중학교를 승부차기 끝에 4대 3으로 힘겹게 물리쳤다.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제패한 것이었다.

이후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한때 학부모들과 지도자의 갈등으로 해체직전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16]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2002년 월드컵 대회 이후로 박지성이 스타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안용중학교 축구부는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면서 많은 스타를 배출하였으며 현재 이들은 프로축구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스타들로는 현재 울산현대의 김영상, 수원삼성 블루윙스의 김대의,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맹활약 중인 박지성 등이 있다. 안용중학교는 축구를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면서 화산동을 빛내고 있는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였고 마을의 자랑이 되고 있다.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 안용중학교

안용중학교 축구부 사무실

4) 주변 대학과 변화하는 교육환경

화산동에 또 다른 변화는 종합대학들이 주변에 설립되면서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원대학교와 한신대학교 그리고 수원과학대학이 화산동 주변에 위치해 있다. 화산동은 최고의 교육적 환경이 둘러싸인 지역이다.

① 수원대학교

수원대학교는 1977년 8월 봉담읍 와우리에 학교법인 고운학원(皐雲學園)을 설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1970년 10월 고운(皐雲) 이종욱(李鍾郁) 박사가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1981년 12월 수원대학으로 인가되었다. 이듬해 3월 개교식 및 1회 입학식을 가졌다. 1983년 인문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1985년에는 공과대학 건물과 대학원 건물을 준공하였다. 그리고 발전을 거듭하던 수원대학교는 1989년 11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10개의 단과대학, 8개 학부, 46개 학과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의 제공을 통하여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간

16)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Ⅲ』, 2005, 871쪽.

인격적 만남과 신뢰가 어우러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지역의 명문에서 벗어나 세계속의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고자 매진해 나가고 있다. 수원대학교는 부설로 동고학연구소(東皐學硏究所)를 운영하고 있다. 동고학연구소는 수원대학교의 건학이념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동고 이준경(李俊慶)의 사상과 생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3년 5월 1일 동고연구소 규약의 발효와 함께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동고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이준경의 학문 · 사상 · 정치 · 경륜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한국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사업도 주로 이준경에 관한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동고학연구소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동고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그의 정치 · 경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일차적으로 세상에 널리 동고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정치 · 경륜을 연구하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동고학연구소는 화성지역의 역사와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로 화성시의 3 · 1운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많은 자료들을 발굴해내었고 『사진으로 본 화성지역의 3 · 1운동과 항일영웅들』 ·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와 근대사진자료집 등을 발간하여 화성시의 새로운 역사자료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교육원은 인격함양, 국가발전, 인류번영의 교육이념과 도덕적 인격인, 자율적 지성인, 진취적 전문인을 목적으로 자아계발, 문화시민자질의 함양, 미래사회 선도능력 배양, 국가사회 봉사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일반교육과정으로 화훼전문자격증 과정, 화훼CEO과정, 보건복원학 과정, 교양 · 연구 과정, 전문가 교육과정 등을 두고 있다. 화훼전문자격증 과정에는 플로리스트강사 양성반, 실내원예 및 베란다 조경, 화훼장식 전문가, 독일 플로리스트 매주 3시간에서 6시간씩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화훼CEO 과정에는 트랜드 상품개발, 웨딩부케 및 연출, 이벤트 꽃 장식, 성전 꽃 장식(입문반 · 전문반), 가톨릭(전례) 꽃 예술, 꽃 포장 기법, 그린플라워테라피, 꽃집 창업, 테이블 장식, 화원 경영 등의 강의가 있다. 보건복원학 과정에는 수기운동 요법 피지컬발란스(균형체육), 카이로프락틱, MRT 근육복원학, 스포츠 마사지 등의 강의 과정이 있다. 교양 · 연구과정에는 생활 법률, NIE논술 매니저 기초과정, 문예창작, 정통 풍수(역학), 만화, 유화, 산수화, 문인화, 동양화와 퀼트, 문인화 전공, 명리학 기초반, 한문(논어), 한문서예, 볼링 등의 과정이 있다. 그리고 한국전통무용(이매방류) 과정에 살풀이춤, 승무, 타악(삼북 · 오북)이 있고, 예술선교무용 과정에 거룩한 성전(부채춤)이 있고, 한국전통무용 과정에 춘앵전이 있고, 부동산 교육과정에 토지경매가 있다. 전문가 교육과정으로는 최고위무도 체육지도자 과정에 경호무술 합기도 봉술이 있고, 상담학 과정에 가정폭력, 성폭력, 청소년지도 상담이 있고, 공예과정에 리본크래프트, 비즈크래프트, 펠트 공예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교육원의 과정들은 지역사회의 주

민들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생업적인 조건에서도 창업 등에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17]

②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는 캠퍼스 진보주의를 내세우는 역사 깊은 대학이다. 1939년 김대현이 조선신학원 기성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4월 조선신학교로 출범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전황 속에 1951년 한국신학대학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부산으로 피난하여 교육을 지속하였다. 1954년 대학원을 개원하였고, 1958년 서울 수유리에 캠퍼스를 두었다. 한신대학교는 역대 군사정권의 독재에 맞선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1973년 유신독재에 맞서 교수와 학생들이 삭발식을 가졌고, 1975년 문교부 휴업령으로 탄압을 받는 등 독재에 항거하는 값진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이다. 한신대학교는 1980년 종합대학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리고 1981년부터는 오산시 양산동으로 이전하고, 수유리에는 대학원만을 남기고 오산캠퍼스 시대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일반학과들을 늘려가며 1985년에는 일반학과의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1986년에는 다시 5공화국의 독재에 맞선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전국 최초로 평교수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후 1991년에는 이공계 학과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 비로소 한신대학교로 이름을 변경하고 신학대학의 이미지를 벗어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97년 교육부 대학종합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 · 2002년은 교육인적자원부 선정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한신대학교는 현재 5개 단과대학, 2개 학부, 27개 학과, 7개 대학원에 5,500여 명의 재학생이 21세기 생명 살림대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서 거듭나고 있다. 또한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이 운영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다양한 교육, 능력개발, 자아성취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역의 공동관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세워진 평생교육원은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학습장이 되고 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기독교 사회교육과정에 교회음악 오르간 연주과정(초급 · 중급), 교회음악 지도자과정(합창 · 지휘), 상담과 자기개발이 있으며 문예강좌로 문예창작교실(시 · 소설)이 운영되고 있고, 보

한신대학교 전경

17) http://www.suwon.ac.kr 참조.

건체육 과정에 건강마사지 교실, 스포츠댄스(초급 · 중급 · 상급), 레크리에이션지도자(자격증)가 있고, 어학과정으로 초급생활영어 · 중급생활영어 · 초급중국어 · 초급일본어 · 독일어회화가 있다. 그리고 전산교육과정에 비쥬얼베이직 · 인터넷정보검색사 · 컴퓨터입문교실 · 컴퓨터활용교실 · 웹디자인(포토샵) · 웹서버관리, 인터넷과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창업강좌가 있고, 지역사회 아카데미 과정으로 방과후아동지도자, 문화유적교실이 운영되고 있다.[18] 더구나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학교를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화산동 주민들의 휴식처도 제공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내의 독산성 등산로 아래에 조성된 한신공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알려져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③ 수원과학대학

수원과학대학은 현재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산9-10에 위치해 있다. 융건릉에서 나와 사거리에서 직진하여 보통리 저수지를 따라 도로 옆에 학교가 들어서 있다. 수원과학대학은 1977년 12월 3일 수원공업전문학교로 기계과 · 기계설계과 · 전기과 3개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3월 1일 초대 학장으로 성기범이 취임하였고, 3월 21일 개교식과 함께 1회 입학생을 받고 입학식을 치렀다. 11월 18일에는 전자과와 건축과를 증설하였다. 1979년 1월 1일에는 수원공업전문대학으로 승격되어 개편 인가되었다. 그리고 10월 18일에 학교법인 고운학원 초대 이사장 고운 이종욱 박사가 취임하였다. 1980년 2월 20일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토목과 · 공업경영과 · 공업디자인과가 증설되었다. 1982년에는 전자계산과와 건축설비과가 증설되었다. 1987년 10월 19일 용접공업과 · 열처리과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1989년 10월 31일 교명을 수원공업전문대학에서 수원전문대학으로 변경하였고 금형설계과 · 증권금융과가 증설되었다. 1990년 10월 23일에는 사무자동학과가 증설되었다. 1991년 4월 29일에는 캠퍼스를 지금의 보통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4개동의 건물에 대한 신축기공식을 가졌다. 1991년 11월 19일에 정보통신과가, 1992년 10월 26일에 건축장식과 · 환경공업과 · 항공관광과 · 사회복지과가 증설되어 인가를 받았다. 1993년 12월 15일 수원대학교와 함께하던 와우리 캠퍼스에서 보통리에 본관 외 5개동이 준공되어 본대학이 이전하였다. 그리고 1995년 치위생과 · 생활음악과 · 방송연예과가 증설되었다. 1996년 10월 21일에는 사회체육과 · 간호과가 증설되었다. 끊임없이 발전하며 학과가 증가되자 1996년 12월 1일에는 사회과학관이 준공되었다. 지속적으로 학교를 확장하며 발전해 가던 1998년 6월 8일 수원전문대학이라는 교명을 지금의 수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하였다. 2001년에는 경기지방 중소기업청과 기술지도대학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2002년 9월 25일에는 종합강의동이 준공되었다. 2004년 10월 7일에 뷰티코디네이션과 · 관광영어과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18) http://www.hanshin.ac.kr 참조.

학교의 내실과 외연적 발전의 연장에서 2005년 10월에는 대만의 명전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2006년에는 중국 남개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따라서 관련학과로 관광중국어과 등이 증설되었다. 수원과학대학은 2006년 현재 제27회 전문학사 학위수여식을 가졌으며 캐나다 VCC(Vancouver Community College), 중국 천진중의약대학교, 미국 PCI(Professional Culinary Institute), 중국 임기사범대학교와 자매결연을 꾸준히 맺으면서 학교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19]

④ 화산동의 교육환경

화산동은 수원대학교와 한신대학교의 많은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한때는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이 격렬하여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지만, 이들 대학을 통해 교육의 환경과 질이 높아지고 교통이 발전하는 등의 혜택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대학 모두 지역민과 함께하고자 학교를 개방하고 직접적인 사회교육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평생교육의 혜택을 주고 있다.

화산동은 새로운 도시건설로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2006년 3월 1일 안녕동에 안녕초등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안녕초등학교는 전체 11학급에 351명의 학생으로 개교했다. 인근에 지속적인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학교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안녕초등학교는 '영어 교육의 활성화'를 특색사업으로 내세우고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수업을 하고 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이같은 외국어 교육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화 · 국제화 시대에 발맞춘 초등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또 아직은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그리기 · 바둑 · 컴퓨터 · 영어 · 종이접기 · 중국어 · 가야금 등 7개 분야의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앞으로 안녕초등학교는 과학실 · 컴퓨터실 · 미술실 · 음악실 · 시청각실 · 어학실 · 도서관 등의 모든 시설을 갖추어 최고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며 화산동의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예정이다.[20] 이렇듯 도시의 변화 속에 교육환경의 변화는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19) http://www.ssc.ac.kr 참조.

20) 『화성신문』 2006년 7월 6일.

(3) 더 나은 삶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

1) 화산동사무소의 새로운 출발

현대의 화성시 행정구역의 변화는 1949년 화성군 시대부터이다. 1949년 8월 15일 대

통령령 제161호로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이 되어 화성군 시대가 열렸다. 1960년 1월 1일에는 오산면이 오산읍으로, 1963년 1월 1일 일왕면이 시흥군과 수원시로 분할되어 편입되고 태장면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며, 나머지 태장면 3개리와 안용면의 5개리를 묶어 태안면이 신설되었다. 1979년 8월 10일 반월면의 일부에 반월지구출장소가 개설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에는 오산읍이 시로 승격되어 분리되면서 화성군은 1읍 15면으로 구성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태안읍 영통리 일원과 신리와 망포리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되었으며 반월면이 수원시 · 안산시 · 군포시로 각각 분할되어 편입되면서 반월면의 존재가 사라졌다. 1996년 4월 20일에는 나머지 태안읍의 영통리 일원과 신리 · 망포리 일대가 수원시에 편입되었다. 1998년 4월 1일 봉담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2읍 13면이 되었으며 2000년 11월 1일 군청사 및 의회 청사를 오산시에서 남양으로 신축 이전하였다. 그리고 2001년 3월 21일 화성군은 시로 승격되었으며,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개정되었고, 태안 · 정남 · 동탄면을 관할하는 동부출장소가 설치되었다.

화산동사무소

〈표 9〉 동부출장소 조직도

이 과정에서 현재의 화산동과 병점 지역이 동부권으로 편성되었고, 2000년 11월 27일 동부권 임시민원실이 설치되었다. 2001년 3월 26일에는 동부출장소 설치가 승인을

받아 4월 4일 개청하여 총무 · 재무 · 부동산관리 · 도시산업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10월 10일 화산동사무소 설치가 승인되었다. 화산동사무소는 2006년 1월 2일 개소하였다. 화산동사무소는 안녕동 19-2 태안농협 안녕지점 건물 2층에 근린시설을 두고 있다. 화산동사무소의 조직은 동장 1명과 사무장 1명, 그리고 사무원 7명이 각각의 업무를 맡고 있다. 화산동사무소는 관할지역으로 법정동인 송산동 · 안녕동 · 황계동의 3개 동 면적 11.63㎢를 관할한다. 화산동은 2006년 7월 현재 가구가 6,843세대이고 인구는 남자 9,890명, 여자 9,123명의 19,013명이다. 이중 복지자원대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 가구가 155세대에 285명이고, 모자가정 가구가 17세대에 50명, 장애인이 714명이다. 현재 화산동에는 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 2개교 1,450명과 중학교 1개교 596명, 기업체는 33업체에 250명, 의료시설로는 병원 1개소, 의원 4개소가 있다.[21]

화산동은 태안읍의 생활구역이다. 태안읍은 서울의 남부에 위치한 수도권 생활 지역이다. 경부 제1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가 읍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동서로는 국지 84호선이 1번 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고, 또한 화성시의 관광 명소로 효의 발원지인 용주사와 융건릉, 근로자종합복지관, 태안도서관, 주말농장과 문화시설 · 위락시설이 있다. 그리고 인근에는 3개의 대학이 있어 효와 문화 및 교육의 고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하여 700여개의 크고 작은 제조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화성산업단지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로망 정비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의 신도시로 부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화산동사무소 직원들은 더욱이 모든 서비스를 주민 행복추구에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동민이 모두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화산동의 밝은 미래와 경쟁력 제고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복지를 위한 삶,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처럼 경제성장정책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서 복지투자는 비생산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보아 복지투자의 확대에 대하여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 또한 현재에도 다른 복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전반적인 복지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사회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 급여비의 지출수준을 보면 유럽 여러 나라는 25~40% 수준이며 일본은 13.4%(1996년 경우)인 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하여는 정부의 복지비 지

21) 화산동사무소 자료제공.

출은 물론 민간의 각종 복지급여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 급여비의 지출수준이 OECD 국가들의 수준 정도로 크게 높아져야 할 것이다.[22]

화산동에는 현재 근로자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다. 화성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은 1998년 3월 개관하였다. 부지 3,396㎡, 건축면적은 3,328㎡이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지하에 수영장과 헬스장이 있고, 1층에는 어린이집과 식당, 그리고 사무실이 있다. 2층은 교육장이 있고 3층은 회의실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교육의 기능과 봉사활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이 없는 현실 속에서 여성회관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교육의 기능으로서는 교양강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연간 1,7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24개 과정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정보화 과정으로 기본 컴퓨터 활용교육과 자격증 대비반까지 있으며, 요리과정에 생활요리 · 한식조리사 · 양식조리사 과정이 있다. 미용과정으로 미용 및 피부발관리 과정이 있다. 그리고 양재과정에 양재 · 옷수선창업 · 홈패션이 있고, 공예과정에 비즈공예, 퀼트가 있고, 취미과정에는 서예 · 노래교실 · 사물놀이 등이 있다.

또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요가와 댄스스포츠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에는 7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여 연 40회 정도의 각종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다.[23]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06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2) 인경석, 「선진국 복지정책 변화의 교훈과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20-1,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1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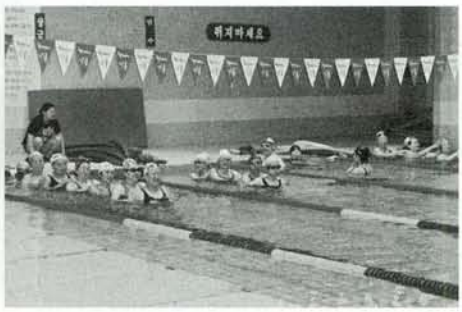
23)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자료 제공.

〈표 10〉 2006년 하반기 교육과목

과 정 명	반 별	인 원	교 육 시 간	강 의 실
정보화	초급오전	30	월 · 목 10:00~12:00	컴퓨터실
	초급오후	30	월 · 목 13:00~15:00	
	자 격 증	30(기존)	화 · 금 10:00~12:00	
	엑셀,파워포인트	30	화 · 금 13:00~15:00	
	초급(야간)	30	화 · 목 19:00~21:00	
요 리	생활요리	30	화 · 목 10:00~12:00	요 리 실
	한식조리사	24	월 · 수 · 금 10:00~13:00	
	양식조리사	24	화 · 목 13:00~16:00	
미 용	미 용	30	화 · 목 10:00~12:00	미 용 실
	피부발관리	45	수 10:00~13:00	
양 재	양 재	25	월 · 수 13:00~15:30	양 재 실
	옷수선창업	25	월 · 수 9:30~12:00	
	홈 패 션	25	화 · 금 10:00~13:00	
공 예	비즈공예	30	화 · 목 10:00~12:00	다목적실
	퀼 트	30	수 · 금 10:00~12:00	
취 미	서 예	30	월 · 목 10:00~12:00	대 강 당
	노래교실(실버)	100	목 15:00~17:00	
	사물놀이	30	월 · 수 10:00~12:00	
	기타교실(A)	25	화 · 금 12:30~14:30	
	기타교실(B)	20	화 · 금 14:30~16:00	
건 강	요 가	50	월 · 목 13:00~14:30	
	댄스스포츠	70	화 · 금 10:00~12:00	
계	22개 과정	763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화산동 주민의 활용도가 꽤 높은 편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화산동의 근로자와 주민들의 부족한 사회복지 기능을 충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화성시 근로자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재교육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는 주부들

3) 미래를 탐구하고 설계하는 화성시립 태안도서관

화성시가 추구하는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도서관 건립사업이다. 화성시는 글로벌 도서관을 목표로 도시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도서관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 현재 화산동에는 화성시립 태안도서관이 시민들의 지식의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태안도서관은 1996년 6월 21일 착공하여 1997년 9월 22일 안녕동 20-1에 준공하였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거쳐 1998년 3월 30일 개관하였다.

〈표 11〉 태안도서관 시설현황

소 재 지	대지면적	연면적	좌석 수	자료실	일 반 열람실	컴퓨터 교육장	기 타
화성시 안녕동 20-1	1,536㎡	1,776㎡	868석	2실	2실	1개	3개소

도서관의 주요기능으로는 자료수집 · 자료정리 · 자료관리 그리고 정보의 제공과 문화행사 및 사회교육의 기능을 들 수 있다. 태안도서관은 21세기 정보시대를 선도하는 최첨단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태안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다. 지하 1층에는 영화감상실과 강의실이 있다. 지상 1층에는 종합자료실 · 어린이실 · 전자정보자료실 · 사무실이 있다. 지상 2층에는 학생열람실과 일반열람실이 구분되어 있고, 문화교실과 문화사랑방이 있다. 2006년 5월 말 도서보유량은 단행본류가 68,498권이고, 간행물 203종, 비도서자료 3,595종이다.

일반도서 · 참고도서 · 논문 및 지도자료가 소장되어 있고,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의 열람이 가능하다. 주부 아동실에서는 각종 아동도서를 열람 또는 대출할 수 있으며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VTR · DVD 및 음향 CD자료의 감상과 전자자료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24]

화성시립 태안도서관

24) http://www.taeanlib.or.kr 참조.

〈표 12〉 태안도서관 층별 현황

층 별	실 안내
B1층	영화감상실, 강의실
1 층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전자정보자료실
	사무실
2 층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
	문화교실
	문화사랑방

〈표 13〉 태안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열 람 실	평 일	07:00~24:00
자 료 실	토 · 일요일	09:00~17:00

〈표 14〉 태안도서관 휴관일

정기휴관	–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 법정공휴일(일요일 제외)
임시휴관	– 시설관리공단 창립기념일(7월 9일) –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정하는 날

태안도서관은 일반인과 학생 모두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지역의 도서관이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발하게 이용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태안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도서자료의 대출 및 열람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화, 서예, 컴퓨터 등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서예, 아동미술, 동화 구연 강좌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교육문화행사로 여름 · 겨울 독서교실을 두어 올바른 독서법 등을 지도하고 어린이 명심보감을 지도하며 도서관 주관 행사로 독서퀴즈대회, 독서의 달 행사로 감상문을 공모하여 도서관 모범 이용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다.[25] 태안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4) 인간을 생각하는 환경사업과 화산체육공원

우리는 지금껏 성장우선주의라는 국가 정책 및 개발논리로 환경을 훼손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 환경을 자본의 축적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파괴하여 왔다. 그럼에 따라 오늘날에 있어 대부분 도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90%가량이 모여 사는 공간이 되었고, 가장 비생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오고 있다. 또 그러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생활 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도시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활공간과 분리된 생태적 공간이 따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26]

현재 화산동에는 수원시 환경사업소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사업소는 바로 생태적 환경의 도시적 실현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사업소는 수원시의 생활하수를 4개 하천(수원천 · 서호천 · 황구지천 · 원천천)을 통하여 모아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원시 전역의 분뇨를 전량 수거하여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5)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Ⅲ』, 2005, 852쪽.

26) 김영수, 「생태적 도시를 위한 신도시개발과 재개발」, 『지역사회발전학논문집』 30-3, 2005, 24쪽.

이 2개 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 31일 환경사업소가 발족되었다.

하수처리장은 수원시의 도시생활 환경개선, 방류수역의 하천 생태계 보전 그리고 하류지역에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1989년 6월 16일 건설부의 설치인가를 받아 총 60,50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의 화성시 송산동 18번지 일원에 51,000평의 부지에 1차로 165,000톤/일 처리규모의 시설을 1995년 6월 30일 준공하였고, 2차로 55,000톤/일 처리규모의 시설을 1996년 12월 30일 준공하였다. 그리고 1단계 계획용량 22만톤/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3월 24일 64,613평 부지에 30만톤/일 처리규모의 제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여, 총 52만톤/일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하수 전량을 처리하고 있다. 하수는 각 처리 공정을 거쳐 황구지천으로 최종 방류되어 아산만으로 유입되게 된다.[27]

수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원시민의 하수처리시설이 화성시에 있는 형국이다. 이에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는 환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시설을 복개하여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인 화산체육공원으로 거듭났다.[28] 오늘날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주민친화형 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혐오시설로서의 이미지를 해소하고, 가급적 지하화시켜 복개 후의 지상에는 공원 또는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고, 여유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친화형의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서 수원시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여 태안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송산동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이며, 하수관거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9] 현재 태안지역의 일부 하수가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

화산체육공원은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그 처리장 상부 복개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 수원시 환경사업소 제2단계 하수처리장 건물위에 부지면적 168,451m²(복개부지 61,660m², 옥외구간 106,791m²)의 규모에 각종 체육시설과 공원 시설을 갖추고 2005년 4월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2005년 4월 7일부터 개방하였다. 공원시설로는 기반시설인 도로 및 광장 · 보도 · 산책로 ·

27) http://env.suwon.ne.kr 참조.

28) 『한겨레신문』 2005년 3월 30일.

29)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Ⅲ』, 2005, 473~474쪽.

화산체육공원의 놀이기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복개공원, 진입육교 2개소가 있고, 조경시설로 건천 · 생태연못 · 잔디광장을 조성했다. 유희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 지압로 · 놀이마당 · 하늘마당을 만들고, 휴양시설로 파고라 · 휴게공간 · 팔각정자 · 벤치 등을 시설했다. 또한 운동시설로 테니스장 · 농구장 · 다목적운동장 · 인라인스케이트장 · 골프연습장(피칭 · 타석 · 스크린) · 우드볼경기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편의시설로 주차장 · 화장실 · 관리실이 형성되어 있다. 일부의 시설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료 수익은 전액을 하수처리비로 사용하고 있다.[30]

수원시 환경사업소는 꾸준히 환경사업소의 견학과 환경교실 등을 운영하며 친환경 하수처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화산동의 주민들은 화산체육공원에서 휴식과 여가활용을 즐기고 있다. 개장하자마자 하루 평균 화성시와 수원시의 주민 300~600여 명이 이곳에 찾아와 휴식을 즐기고 있다.[31] 일종의 혐오시설이었던 하수처리장이 주민과 함께하며 친환경시설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 금융기관의 어제와 오늘

화산동의 금융기관으로는 태안농협 안녕지점과 새마을금고가 있다.

먼저 태안농업협동조합은 1969년 설립되었다. 그해 초대 조합장으로 박승룡이 취임했으며 1986년 7월 19일 종합사무소를 신축하여 건평 212평 규모로 완공하였다. 이듬해부터 망포지소의 개점을 시작으로 1994년에는 안녕지소가 718평 규모에 개점하였다. 1998년 7월 1일에는 영통지소도 개점하였다. 태안농협은 1998년 상호금융 예수금 1,000억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상호금융 대출금도 1,000억을 달성하였다. 태안농협은 계속 발전하며 2001년에는 상호금융 예수금 2,000억 달성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상호금융 3,000억을 달성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경기농협 3/4분기 업적평가 최우수농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4년에는 상호금융 예수금 4,000억을 달성하며 2005년에는 상호금융 대출금 3,000억 달성을 이루었다. 태안농협은 신용사업 · 구매사업 · 판매사업 · 마트사업 · 공제사업 등을 활발히 벌이며 태안지역에서 지역금융의 중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녕지점 역시 태안농협 소속하에 화산동의 중심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기본적 금융업무 외에 하나로마트를

30) http://env.suwon.ne.kr 참조.

31) 「동아일보」 2005년 4월 27일.

운영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32]

태안농협 안녕지점

최근 농협의 역할이나 비전 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경제에서 농협의 위치를 새로운 각도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농협의 미래는 농촌에서 변화된 도시와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화과정에서 인구특성 · 산업특성 · 토지이용특성 등의 변화로 조합원 수 및 준조합원 수의 변화, 농협사업의 변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산동 역시 이러한 도시변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농협이 단순한 금융기관의 기능을 넘어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그 변화를 어떻게 담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태안농협 안녕지점은 화산동에서 중심적인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실질적으로 화산동 주민의 금융업무는 안녕리 중심에 위치한 태안농협 안녕지점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들은 공과금 납부 등의 금융거래 업무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해결하고 있다. 현재 태안농협 안녕지점에는 화산동사무소도 위치하고 있다.

화산동의 또다른 금융기관으로는 안녕동 38-12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있다. 새마을금고 운동은 1960년대 초 자연마을 단위에서 재건 국민운동이 추진될 때에 마을금고로 출범하여 1973년 3월에 마을금고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화성시 새마을금고도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자연부락단위에 마을금고가 조직되어 예금 · 비료 · 종자 · 농약 등을 공급할 때마다 일정액의 출자금을 갹출하여 자금을 조성해 갔다. 1983년 1월에 법률 제3622호로 공포된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새마을금고 운동이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향약(鄕約) · 계(契) 등과 같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협동조직이 상존하여 왔다. 새마을금고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우리나라 고유의 협동조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적인 하부조직으로 출발하였다.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회원에게 저축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조성된 자금을 회원에게 저리융자하는 금융모체 활동을 통하여 농촌 및 도시의 잉여자금을 직접 생산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것은 외부금융의 확대에 의한 실물경제의 성장과 잉여자금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새마을금고는 이웃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상부상조 정신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 의식을 갖고 공동체를 강화시켜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32) 태안농업협동조합, 『우리농협 소식지』 2006년 8월호(75호) 참조.

하지만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개방화된 국제시장 환경 아래에서 국내금융기관과 더불어 구조조정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요구되고 금융업무 종사자들의 의식과 능력이 경쟁시대에 맞게 전환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은 보다 통합된 경쟁시장이 예측되고 또한 판매자 시장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변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초대형 은행이 되거나 금융전문점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금융시장이 변모할 경우 새마을 금고는 초대형 은행으로 변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금융전문점이 되기 위한 점진적인 변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33]

안녕새마을금고

화성시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운동에 따라 그 취지와 배경에 의해 조직되었다. 설립목적과 지향하는 방향을 우리 고유의 자율적 협동조직인 계 · 향약 · 두레 등 마을 생활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의 원리에 의한 신용사업과 공동체 사업 등의 생활금융과 문화 · 복지 · 후생사업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발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발전하고 있다.[34]

화산동의 안녕새마을금고는 바로 이러한 바탕아래에 화산동 주민들과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안녕새마을금고는 안녕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작은 금융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안녕새마을금고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튼튼한 자본력을 유지하며 화산동 주민들의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화산동 지역주민의 대부분 금융업무는 태안농협 안녕지점과 안녕새마을금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지역 금융의 중심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화하는 도시화 과정 속에서 지역 금융업무를 담당할 이들 기관은 그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33) 김강호 · 이진수, 「새마을금고의 지역밀착경영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3권-6,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123~124쪽.

34)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 Ⅲ』, 2005, 629쪽.

(4) 나오며

화산동의 주민과 함께한 마을 기관의 어제와 오늘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적인 변화만이 아니다. 그것은 화산동 주민들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한다. 토박이들이 많이 마을을 떠나고 새로운 주택건설로 이주민이 들어와 화산동 주민으로 정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마을기관들도 늘어났고, 주민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화산동의 교육기관으로는 화산초등학교 · 안녕초등학교 · 안용중학교가 있다. 이들 교육기관의 인재들은 화산동을 빛내며 세계 속의 인물이 되었다. 그것은 화산동이 미래의 축구 꿈나무들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축구부 육성 특화사업으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선수들이 화산동에서 탄생했다. 그리고 이들 학교의 많은 졸업생들은 아직도 화산동을 지키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대학들은 화산동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놓으면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대학이 함께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의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것은 대학이 단순한 학생들만의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의 기능이 지역 사회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산동의 행정기구로는 화산동사무소를 비롯하여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화성시립 태안도서관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은 휴식공간과 여가활용의 장으로 이들 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화산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의 혜택과 헬스장, 수영장 등을 이용하며 여가 활용과 건강을 챙기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지식의 탐구는 물론 각종 강연과 영화감상 등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오랫동안 주민들의 금융기관으로 농업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마을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 1월 22일 화성경찰서 안용파출소가 인가되어 범죄 없는 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화성시는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곳에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적 요소가 강했던 화성시가 도시적 면모로 재탄생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요소가 어떻게 소화되고 변화할지는 미지수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느냐는 것이다. 농촌적 요소가 도시적 구조에 편입되면서 기존에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숙제이다. 때문에 복지사회의 추구를 위한 마을의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윤택하게 지속적으로 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도시의 변화와 발전은 인간의 삶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마을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류 현 희(의왕시사편찬위원회 상임연구원)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사회적 조건과 기반을 공유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은 살아감에 있어서 단순히 주어진 조건을 수용하기보다는 적절한 고민과 노력을 투여하여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거나 스스로 적응해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누적된 시간의 결과물은 인간 삶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며 역사로 또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 · 문화의 창조자이기도 하면서 때론 스스로 이에 결박되기도 한다. 오랜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인간 자신을 구속하는 매개가 되기도 한다. 어쨌거나 인간의 자발적인 활동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이다.

모든 과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무심코 지나가는 마을 공간배치, 마을 지명 하나하나도 그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만의 인간 관계망의 소산이다.

화산동이라는 마을공간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때론 공유하고, 때론 갈등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이끌어냈다. 사람들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만의 생활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상호작용의 큰 흐름을 읽어가면서 화산동이 어떻게 변화 발전했는가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오랜 시간을 펼쳐 놓으면 한국사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 개개인의 경험은 치열하고 단독적이며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 화산동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적응방식을 통해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훌륭한 양식이 될 수 있다.

화산동은 2006년 행정구역 개편 때 태안읍(台安邑) 황계리(黃鷄里) · 송산리(松山里) · 안녕리(安寧里)를 합해 융릉 · 건릉이 있는 화산(花山)의 지명을 따라 화산동(花山洞)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1] 위치는 화성시 동쪽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쪽은 수원과 경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용인 · 동탄면에 인접하고 있고, 남쪽으로 오산 · 정남면에 맞닿아 있으며, 서쪽으로는 봉담읍과 경계하고 있다. 3개의 타 시군과 접하고, 3개의 화성시 내의 읍과 경계를 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통과나 교류도 원활한 지역이다.

또한 화성은 한반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하는 낮고 편평한 지역이며, 전체적으로 준평

1) 이 글은 『화성시사』에 실려 있는 화성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 일일이 주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 『신현동지』 · 『이의동지』 등을 참조하였다.

원 지역에 해당한다. 산지도 300m 이하의 저산성 산지에 속한다. 가장 높은 산이 봉담읍 세곡리에 있는 건달산으로 336m이다. 화산동에 소재한 산은 두 곳으로 성황산은 139m, 화산은 108m에 불과하다. 평탄지이다 보니 하천도 주로 발원지와 유출구가 모두 타 지역에 있는 일종의 통과하천인 경우가 많다. 화산동을 흐르는 하천은 오산천과 황구지천으로 안성천 수계에 해당한다. 두 하천은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하천으로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이다. 그러나 화산동을 통과할 때는 유로가 짧고 유량이 적은 하천이다. 황구지천의 경우는 태안읍 · 정남면 · 양감면을 지나 남류하면서 넓은 평야지대로 유입하고, 진위천과 만나서 안성천으로 들어가는 남쪽 평야지대의 귀중한 물줄기이다.

이러한 자연적 조건을 갖춘 화산동은 오래전부터 인간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이곳에 인간이 거주하면서 자신들만의 역사무대로 만들었다. 화산동은 전통과 현재의 교차점이다. 이제 그들의 흔적을 통해 화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선사시대에서 수성군까지

화산동에 인간이 살았던 흔적은 인간이 남긴 취락 유적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현재 대도시가 발달하거나 오랫동안 인간이 거주해 온 경험을 가진 마을은 대체로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했던 곳이다. 그때의 경험이 현재도 유효한 것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인간이 거주하기 좋은 환경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로, 마을의 역사가 오래된 곳은 그만큼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당한 곳이다. 화산동 일대에도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화산동 주변에 선사유적지부터 삼국, 고려시대까지 다양한 유적지가 분포하고 있다고 한다. 화산동 일대의 오래된 유적의 발견은 화산동 지역도 이러한 범주에서 속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주변에 성(城)이나 방어시설의 발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즉 집단취락의 발달은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생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성곽의 발달을 뜻하기도 한다.

고금산에 있는 청동기의 경우는 기원전 11~12세기의 것이며,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대규모 취락이었다고 한다. 병점리 유적에는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인 고인돌이 존재하는데, 화성일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 고금산의 경우 청동기와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이 공존하며, 시기적으로는 2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에 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적은 경기지역과 지금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의 그것이다. 백제유적

은 고금산에 분포하는데, 앞서 선사시대부터 철기를 거쳐 삼국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었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고금산-기안리 제철유적-화산고분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이다. 규모면에서도 태안, 봉담, 길성리토성과 주변유적군, 우정유적군 등이 우세하다. 이곳 지역은 수원-화성지역의 중핵적 집단의 기원이 적어도 삼한단계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화산으로 이어지는 정치 · 행정의 중심지로 계승된다. 읍성의 축조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화산 정상부에서 이 시기 고분군이 발굴되고 있어 수성군의 치지일 가능성이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화산동 주변인 봉담읍 분천리 · 와우리, 화산동 송산리 일대는 읍치였다. 정조 이전까지 수원부 구읍치가 화산아래 있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이곳에 읍치가 있었을 가능성을 알 수 있다. 읍치를 중심으로 하는 수주의 통치권은 상당히 넓었을 것이며, 서북으로 오늘날 인천시로부터 안산시, 북으로는 수원시, 동으로는 용인시 일부, 동남으로는 안성시, 남 및 서남으로는 평택시의 거의 전역을 통합하는 거대 군현이었다고 한다. 태안 일대는 유제처(榆梯處)로 장 · 처 · 부곡 등과 같은 특수 신분층이 거주하는 읍치나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는 직할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수원도호부에서 일제시기

조선중기까지도 화산동의 행정치소 지위는 유지되었다. 수원읍이 이전하기 전까지 이 일대가 구수원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1792년 읍치가 이전한 후 관아와 행정기관이 있었던 지역은 용복면에 합쳐지고, 나머지는 안녕면과 시봉면으로 편입되었다. 대략 지금의 화산동 경역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넓었을 것이다.

당시 수원도호부 본부(本府)에는 최 · 김 · 이 · 서씨 등이 4대 성씨였고, 촌락성(村落性)과 내성(來性)이 있었으며, 망성도 백 · 최 · 이 · 방 등 4개나 되어 총 10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남양도호부가 7성인 데 비하여 많은 것이며 당시 유제처[화산동]에 성이 차(車) 하나였고, 다른 지역에도 성이 1~2개였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수원부는 남양지역에 비해서 읍세도 4~5배나 컸던 지역이다.

수원부 읍치의 이전은 이곳 화산동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낸다. 능이 설치되고 관청이 있었던 곳에 화소지역이 설치되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신읍치로 이전되고, 신읍치로 이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화소지역의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수원부는 새로운 역사적 공간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 남아 있는 지역에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더구나 능이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좌정한 용이 구슬을 가지고 노는

형국", "구슬이 서로 마주보며 하늘을 향하는 형국"인 길지라고 했던 풍수적 입지는 나름대로 수원부 읍치의 이전에서 오는 심리적 공황과 허탈상태를 보완해 주기도 했다. 한편 융 · 건릉 이외에 사도세자의 원찰로 용주사가 중창된다. 후일 용주사는 경기 남부지역의 대표적인 사찰로 성장하게 된다.

수원부 지역은 조선중기 이후에는 점차 '기보(畿輔)의 문호(門戶)' 로서 남로의 요충으로 인식된다. 수원부는 '창곡과 군민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였다.' 는 임진왜란 초기 기록에서도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수원=기보의 문호' 라는 인식은 임란과 병란 등 양란을 경험한 조선사회의 수도 중심의 방비론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당시 조선사회의 수도중심의 방비론, 조선후기 도성을 중심으로 한 4도(都) 유수부체제가 성립된 것도 그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수원부 지역은 기보의 문호로 인식된 조선후기 이 지역의 지역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에 속하면서 도시화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었음을 말한다.

어쨌거나 화산동은 선사유적이 누층적으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고 좋았던 지역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화성시 내에서 논의 비율도 높고 생산성도 좋은 지역이기도 하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돋보인다. 정조는 신읍치로 이전하면서 구읍치와 신읍치에 만년제 · 축만제 등을 설치하여 수리시설이 완비된 농업도시로 발전시켰다. 이후 화성이 전국적인 농업 진흥의 시범지역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조선시대부터 수도 한성 이남의 중심부에 위치해 유리한 조건으로 중부지방 농업생산의 전초기지였으며, 신읍치 조성사업 이후 지속적인 자생적 농업기반의 확보는 화성시의 농업기반을 새롭게 확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당시만 해도 농업이 주요한 생업의 수단이었고, 산업의 근간이었으며 첨단산업이었다고 할 만하다. 정조는 자급자족의 신도시 육성을 위해 제언을 축조하고, 농업을 권장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말에서 일제시기를 거치면서 행정구역이 재편되는데, 1896년에 태촌(台村) · 장주(章州) · 남부(南部) · 안녕(安寧) · 용복면(龍伏面)으로 편재되어 있던 것을 1914년 행정구역 변천과정을 통해 태촌면(台村面)과 장주면(章州面) 일부를 통합 태장면(台章面)이라 칭하고, 안녕면(安寧面)과 용복면(龍伏面) 일부를 합쳐 안용면(安龍面)이라 하였다.

일제시기에 능 주변 국유지 대부분이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편입되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소작을 했다. 당시 안용면 소작비율은 60%에 달해 많은 사람들이 소작을 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까지 철저하게 자작과 자소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의 비약적 증대 양상이 확인된다. 이처럼 소작비율이 매우 높았던 이유는 당시 국유지가 동척으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대지주로서 이곳 주민들과 소작관행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당시 경기도와 수원군의 농업현실은 다른 군에 비해 낙후되었는데. 이는 소작농 중심이라는 생산관계 측면에서 노동의욕의 감퇴와 더불어 생산기술과 조건이 낙후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일대는 일제의 침략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황계리 일대에는 직물업이 침략전쟁과 함께 발전했고, 이후에는 그 일대 수십 만 평의 땅에 비행장이 들어섰다. 즉 직물업, 염업, 우마차 운송 등의 특정 산업이 발달했으나, 식민지하에서 화성군민의 삶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공업시설은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징용 · 공출 등 장기적 수탈로 인해 자체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축적하기 어려웠다. 물론 조선의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한편으로 이곳을 거치는 경부철도는 지역구조를 재편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량 화물을 원거리까지 빠르게 운송할 수 있었고, 철도선을 따라 새로운 교통 상업 중심지가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철도역이 들어선 지역 중에서는 상업뿐 아니라 행정 · 서비스업 · 유통 · 제조업 등이 집적되어 신흥도시로 성장한 경우도 많았다. 철도는 기존 도회지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원이다. 수원은 수인선과 수여선의 정착역이며, 경부철도가 관통한다. 정조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수행되어 이미 경기남부의 최대 도회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산 · 평택도 성장했으며, 수원과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화성지역은 20세기 서울 주변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안성중심의 경기남부 상권은 경우 경부철도의 영향으로 1910년대를 기점으로 수원-화성-평택으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일제시기 철로를 중심으로 일련의 대시장이 분포하게 된 것이다. 철도가 수탈의 도구로 설치되었지만, 안성장의 상권을 이곳 오산 · 수원으로 이동시키고 반사이익으로 화성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3) 현재의 화산동

1945년 해방되고 조선은 자생적 발전을 모색한다. 친일을 청산하려는 노력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화성이 수원시와 완전하게 분리되게 된 것은 1949년으로 수원시가 분리 독립되면서 나머지 지역을 묶고 화성군이라 하였다. 1963년에는 이 일대가 태장면 8개 리와 안용면 6개 리를 통합하여 태안면으로 신설되고, 이후 1984년 읍으로 승격되어 유지되다가 1994년과 1995년에 걸친 일부 지역을 수원으로 편입시키고, 2001년에 드디어 화성시로 승격하게 된다. 2003년에 기안5리가 신설되면서 64개 행정리로 대대적인 행정구역

을 개편하여 2006년에 이르러 화산동으로 승격된다.

화산동은 현재 전체 면적 중 대부분은 밭과 임야로 전체 면적 11.634㎢ 중에 답이 3.154㎢, 임야가 3.15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가 기타 용지와 논이다. 2006년 현재 인구는 19,132명이며, 이 중 남자는 9,982명, 여자는 91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인구가 조금 많은 이유는 제조업 공장, 비행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가구 구성도 전체 가구 6,545호 중 농가 427호, 어가 2호를 제외하고 6,116호가 비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시를 중심으로 반경 60㎞ 이내에 서울을 비롯한 19개의 도시가 분포하고 있으며, 인근지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한 1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전철 등 각종 도로망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주변에 평택항과 인천항 등이 있어 수도권의 확산과 이전에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다.

조선후기 경기 이남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도권 확산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화성은 동탄 · 태안 · 봉담 · 발안 · 향남 지구 등 주거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수도권 확산이 용이한 지역으로 일제시기부터 교통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있었다. 인근 수원역과 병점역을 통한 철도이용의 용이와 각종 고속도로와 운송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결과였다. 화성군 동쪽으로 화산동(당시 태안읍)과 봉담읍의 인구증가는 폭발적이다. 1988년에 비해 2001년 현재 증가율도 엄청나다. 태안읍의 경우는 2001년 현재 인구밀도가 1,767명/㎢으로 가장 높고, 봉담읍은 두 번째로 570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 일대 대규모 택지 개발의 영향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2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의 충분한 동인은 되었지만, 화산동의 변모는 1960년대 이후부터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전시기 농민들의 힘을 합쳐 정미소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1954년경 안녕리 단위농협을 설립한다. 여기에는 조합원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등 작은 동네 치고는 많은 사람이 힘을 보았다. 이러한 자생적 노력위에 1960년대 재건운동과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전근대 시기의 생활양식과 결별한다. 이후 본격적인 도시화가 진행된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화산동에는 제조업체 등 공장이 증가하게 된다. 이곳은 토지 이용면에서도 화성의 읍 · 면 · 동 중 논과 대지, 공장용지의 비율이 가장 높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바 사회의 기간망인 도로와 철도 이용이 용이하여 대도시와 연결이 편리한 이점이 있으므로, 700여 개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듯 1960년대 이후에는 이곳에 다양한 서비스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특히나 화산동 일대, 우정, 향남 등 3곳이 음식점이나 유흥업, 숙박업 등에 있어서 화성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본 생업과 생산업 이외에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 증가

하였으며, 생업에 이탈된 인구의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화산동 일대의 서비스업체의 증가는 이곳이 다른 시군과 접촉하는 통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화산동은 여전히 도회지도 농촌도 아닌 전통적 문화와 도시적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변화를 느끼는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변화를 인식하는 큰 기점이나 매개체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부터 동리에 아는 사람들을 따라서 외지인이 많이 유입했으며, 공장시설이 증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를 거치면서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 외지인의 유입과 아파트 확산은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마을 공간은 점점 좁아졌고, 이전 사회가 가지고 있던 공동체 문화를 공유하기 어려워졌다. 즉 산제나 동제 같은 마을사람들을 위한 공동의식들이 미신이라 해서 참여자도 점차 줄어들었고 없어지게 되었다. 성황산에서 황계리 · 송산리 사람들이 지내던 산제도 없어졌다. 전근대 시기 농업사회의 공동체 문화가 도시화 · 산업화 속에서 그 의미를 잃어가면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마을 제사도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 문화충격 변화속도가 이전시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다. 마을 주민들도 새마을운동시기보다는 1990년 이후의 도시화에 더 큰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 오랜 시간 축적된 인간들의 생활양식은 한순간 변화하기 힘들지만, 1990년대 이후는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등장이 가져온 변화는 말할 수 없이 큰 변화이며, 다른 곳에서 이주한 외지인들은 다른 생활문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전통적인 의식도 점차 간소화하고 편리성이 추구되고 있다. 그리고 아파트의 확대로 인한 인구증가는 상권의 형성과 기간 시설의 증대를 수반, 도로건설, 교통망의 정비, 상권 및 편의시설 등의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인간 거주가 용이한 기존도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이에 따른 도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듯하다.

(4) 그리고 미래

화산동은 과거의 전통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

화산동을 포함하는 화성시는 미래 산업개발을 위해 7개 구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특징에 의존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다. ①제부도~궁평리~입파도~국화도로 연결되는 주말관광 휴양벨트 조성, ②송산~남양~금의~조암으로 연결되는 자동차산업벨트 조성, ③비봉~매송~봉담~향남축의 생명공학벨트 구축, ④동탄~태안~정남~양감으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벨트 구축, ⑤동탄 신도시 우측에 미래 첨단형 전원휴양벨트 조성, ⑥남양호~화성호~장안~우정~송산을 잇는 지식기반첨단농업벨트 구축, ⑦송산면 및

비봉면 북측 시화지구에 환경해양상태 자족기능 부여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현재 동탄~태안(화산동 일대)~정남~양감으로 이어지는 산업으로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관련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산업을 의미한다. 인접한 동탄 신도시 내의 첨단반도체산업 및 화성지방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 R&D 기능의 연계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태안 · 병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대학생 중심의 첨단서비스 산업의 기지화를 추진할 목적이다. 그리고 정남면에 지식기반 제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남면의 중심을 통과하는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연장선을 이용한 접근성의 향상을 부각시켜 병점 역세권 및 제2화성 행정타운의 입지에 따른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교통인프라의 완결과 함께 양감면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물류 거점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러나 첨단산업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래사회의 중요한 산업기반은 문화 · 환경 · 생태산업이라고 할 때, 화산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의 확대에 따른 산업화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따름이다.

그러면 화산동이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의 소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21세기 미래산업으로 친환경농업과 환경관련 사업이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산동 지역은 200여 년 전부터 예비된 농업선진지역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창곡과 군민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였다.' 고 할 정도로 안정된 기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정조가 신읍치로 이전하면서 이곳을 자급자족의 농업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던 곳이다. 물론 농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고 농가지원도 전제되어야 한다. 영농인구의 감소로 작업의 기계화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젊은 인력의 지속적 투입과 계승이 절실하다. 200여 년 전 정조의 농업환경 육성은 현재의 친환경 농업이 이 지역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는 문화산업 기반이 있다. 화성시 전체 용도면적 1,814,050㎢ 중 문화자원보전지구는 848,720㎢이며, 나머지 취락지구는 965,330㎢에 해당한다. 문화자원보전지구 중 태안(화산동 일대)에 설정된 구역은 845,820㎢으로, 문화재 구역이 화산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이곳에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문화재 구역으로 개발이 저해된다고도 생각했었으나, 역으로 생각하면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개발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 현재 화산동에 있는 문화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보 120호 용주사 범종, 사적 206호 지정 융릉 · 건릉, 경기도 유형문화재 용주사 금동향로(11호), 청동향로(12호), 용주사 상량문(13호), 전적수사본(14호), 용주사 병풍(15호),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16호), 불설부모은중경판(17호), 경기도기념물인 안녕리 만년제(161호), 안녕리 수원

고읍성(93호) 등 다양하다.

문화재는 해석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때론 전근대 수탈의 한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당대 문화 양상의 정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건축하거나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화양식과 문화의 총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각시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화산동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랫동안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 좋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물론 화산동 일대, 동탄, 향남 지역에 주거 양상이 증가하면서 변화를 수반하고 있으며, 주택공사가 용주사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이제까지의 환경이 앞으로도 유지될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만년체는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매립되어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이는 역사 보전을 통한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보다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에 치중한 욕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화성시와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이곳은 용주사, 융·건릉, 수원 고읍성으로 연결해 역사공원 조성이 가능하다. 문화재가 많으며 자연녹지 등이 많아서 역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보전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과거의 전통에 매몰되어 현재 도시민의 욕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 가능하면 이들의 편리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서, 문화자원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개발전략을 짜야 한다. 생활개선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 중심기능을 담당할 주거지를 개발하며, 무질서한 토지이용의 방지와,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도모, 이에 더하여 사유재산 손실의 최소화, 개발차익의 균등화 등에 이바지함으로써 화산동 일대의 개발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주거지도 정기적 도시개발의 전략과 방향을 수용하면서 체계적인 공간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존 시가지와 유기적 연결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시설이나 도시 기반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화산동은 도회지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며, 외지인이 많이 유입되어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아직 대도시처럼 마을의 역사성과 공동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곳이다. 아직 예전의 따뜻한 마을로 돌아갈 희망이 남아있는 곳이다. 친환경적이며,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모습을 기대한다.